

濟州大學生의 生活態度 및 意識構造에 대한 綜合的 分析*

高明奎*·姜東植**·金斗和***·李昶勳****

目	次
I. 序論	7. 人生觀의 形成
1. 研究의 目的	8. 正體感
2. 研究의 計劃 및 研究期間	IV. 態度 및 意識構造 調查 結果 및 分析
3. 研究의 制限點	1. 專攻不適應과 轉科問題
II. 研究方法 및 節次	2. 交友關係 問題
1. 研究의 方法	3. 異性 및 性問題
A. 理論的 接近	4. 餘暇善用 問題
B. 統計的 接近	5. 씨름活動 問題
1) 研究對象 標集	6. 學生生活研究所 問題
2) 調查道具	7. 副職問題
3) 資料處理 및 分析	8. 家庭問題
III. 青年期의 發達의 特徵 探究	9. 性格 및 身體健康 問題
1. 情緒의 特質	10. 價值觀의 問題
2. 獨立의 要求와 同僚關係	11. 教授-學生 人間關係 問題
3. 異性關係	12. 將來 進路問題
4. 知的 生活의 特徵	V. 綜合的인 學生指導 方案
5. 職業選擇	1. 밝혀진 主要 事實
6. 餘暇 및 娛樂	2. 綜合的인 學生指導 方案

* “이 論文은 1987 年度 大學自體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學生生活研究所 相談指導部長 (師範大學 教授)

** 學生生活研究所 調查研究部長 (專任講師)

*** 學生生活研究所 就業輔導部長 (專任講師)

**** 學生生活研究所 (助教)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青年期는 인생 과정에서 아동의 지위를 벗어나서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기까지의 불안정한 기간으로서, 過渡期的 性格을 띠고 있다.

흔히 心理學者들은 이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청년기의 心理的 特性을 가리켜 “自我의 發見 (finding the self)” “第二의 誕生 (new birth)” 또는 “反抗期 (negative phase)” 등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希望의 봄인 동시에 絶望의 겨울” 혹은 光明과 暗黒이 공존하는 時期”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토록 청년기는 人生의 再出發이 始作되는 시기요, 精神과 生活樣式의 再體制化가 이루어지는 시기임과 동시에, 兩極을 잇는 架橋나 兩極을 중화시키는 中庸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均衡을 잃은 言動과 不適應을 일으킬 傾向性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시기를 통하여 무한한 煩惱와 精神의 葛藤을 겪어나가면서 참다운 自己正體를 확립할 수 있는 可塑性 (plasticity)도 풍부히 지니고 있다.

그런데 젊은이의 이러한 成長發達 可能性의 實現程度는 과도기가 지니고 있는 一般的 性質에 대한 該博한 知識과 理解與否와 아울러, 그들이 호흡하고 있는 生活環境, 즉 教育的 大學環境의 構成與否에 따라 크게 左右된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과도기 성질에 대한 理解의 必要性은 문제유발도가 비교적 높은 이 시기에서의 教育的 措置의 拙劣과 矛盾으로 인한 成長의 障礙를 최소로 줄이는 데 있으며, 教育的 環境의 再構成의 必要性은 自校의 傳統과 特性 및 學生意識을 분석·검토하여 새로이 마련된 物理的·心理的 環境의 再構成, 즉 綜合的인 學生指導創案은 학생들의 多樣한 能力을 신장시킬 수 있는 教育的 機能을 발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研究의 目的은 大學生의 心理的 特性을 深層的으로 理解하기 위해 青年期의 發達的 諸相을 探究함과 아울러, 특히 濟州大學生의 生活態도와 意識構造를 調查·分析하여 거기에서 나온 資料를 토대로 본 大學 나름의 綜合的인 學生指導方案을 提示하여 보려는 데에 있다.

2. 研究의 計劃 및 研究期間

- 1) 계획 및 준비 : 1987. 4
- 2)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 1987. 4 ~ 5
- 3) 설문지 작성 및 조사 실시 : 1987. 5 ~ 6
- 4) 설문지 결과 처리 및 분석, 해석 : 1987. 7 ~ 9

5) 보고서 작성 : 1987.10 ~ 12

6) 보고서 인쇄 : 1987. 1 ~ 3

3. 研究의 制限點

1) 청년기의 發達의 特徵에 대한 고찰에서 大學生은 青年後期로서 이에 관련된 발달의 諸相을 상술하지 못하고. 청년기라는 單一段階下에서 그 내용이 검토되었다.

2) 당초 본 연구에 포함된 大學生의 態度 및 意識構造 調查研究는 전체별·대학별·성별 외에도 學年別까지도 포함해서 계획했었으나, 내용의 龐大性으로 인해서 이를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

3) 본 연구에서 對象이 된 大學生의 태도 및 의식구조 조사는 濟州大學生에 限定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一般化하는 데는 慎重을 기해야 될 것이다.

II. 研究方法 및 節次

1. 研究의 方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기 다른 두 가지 方法이 동원되었다.

첫째, 理論的 接近으로서 제 학자들에 의해 연구 보고된 청년기의 發達課業 중에서 本 研究와 관련된 領域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第III章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統計的 接近으로서 設問紙를 통하여 12개 영역에 대한 大學生의 態度 및 意見을 조사하여 통계적 方法에 의하여 分析하였다. 여기에 관련된 節次는 다음과 같다.

1) 研究對象 標集

1987 학년도 본교에 在學하고 있는 학생 總 6,377명('87년 4월 1일 현재) 중에서 1,398명을 大學別(야간강좌부 제외)로 학년별 구성인원(1학년 제외)과 남녀 구성비를 신중히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學年別과 이에 따른 性別에 의해 구성된 大學別 標集分布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標集對象者 1,398명중 1,046명(회수율 75%)이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도 사용처 못할 설문지는 제외하였고, 무응답한 항목도 모든 <表>에서 제외하였다.

2) 調査道具

12개 영역에 대한 問項作成은 각 대학에서 이미 작성 보고한 설문내용을 본교의 학생에 적

표집 분포도

대 학 별	학년별 학생수	성 별	
		남	여
1. 인 문 대 학	168	42	126
2. 사 회 과 학 대 학	243	177	66
3. 사 범 대 학	207	86	121
4. 농 과 대 학	139	114	25
5. 해 양 과 학 대 학	97	86	11
6. 이 공 과 학 대 학	192	140	52
	1,046	645	401

합하도록 재수정하여 調査道具로서 사용하였으며, 各 領域에 다른 問項數는 다음과 같다.

각 영역의 문항수

- (가) 전공부적응과 전과문제 (4 문항)
- (나) 교우관계 문제 (5 문항)
- (다) 이성 및 성 문제 (6 문항)
- (라) 여가선용 문제 (1 문항)
- (마) 씨클활동 문제 (5 문항)
- (바) 학생생활연구소 문제 (7 문항)
- (사) 부직문제 (2 문항)
- (아) 가정문제 (3 문항)
- (자) 성격 및 신체건강 문제 (2 문항)
- (차) 가치관의 문제 (3 문항)
- (카) 교수-학생 인간관계 문제 (4 문항)
- (타) 장래의 계획 (2 문항) 등 전체 44 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3) 資料處理 및 分析

설문지에 응답된 자료는 全體別·大學別 및 性別 區分에 따라 반응항목별로 百分率(%) 을 산출하고, 그 관련성 및 차이는 χ^2 檢證을 하였다.

資料分析도 반응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혹은 경향성을 全體別·大學別·男女別로 밝혀 나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Ⅲ. 青年期の 發達的 特徵 探究

청년기는 아동적 환경에서부터 성인적 환경으로 이행해가는 過渡期(transitional period)이다. 이러한 과도기의 기간과 발달적 특징에 대해서는 學者間에 다소 差異가 있다. 발달과업의 개념을 성숙시킨 Havighurst¹⁾는 청년기를 12세부터 18세로 보아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할 發達課業의 內容을 10가지 들었으며, Cole²⁾은 청년기의 발달적 과업을 包括的 立場에서 9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그 연령을 11~20세로 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김중서 등³⁾에 의하면 청년기를 青年前期(12~18, 19세)와 青年後期(19~24, 25세)로 구분하고 청년 후기를 知的·情意的·社會的·身體的 領域으로 세분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위의 3者에 의한 청년기의 발달적 특징영역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8가지 領域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大學生은 연령적으로 青年後期(19~24, 25세)에 해당되어 청년전기(中學校: 12~15세)와 청년중기(高等學校: 15~18세)와 다른 發達的 特質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資料蒐集의 未備로 인해 各 段階別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음을 이미 制限點에서 밝힌 바 있다.

1. 情緒的 特質

情緒(emotion)란 개인이 일정한 사태에 직면해서 강한 동요상태에 빠져 있을 때 生理的 變化(내장기능의 변화)와 表出運動을 수반한 강한 감정으로서 의식되며, 또 비교적 短期間의 경과를 거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기가 되면 자아의식의 각성에 따라 예민하고 다양한 自我感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해서 對象感情이나 社會感情 등도 다종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이같이 청년기의 정서는 內容이 단순하게 풍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정의 양태는 情緒·氣分·情操 등으로 분화되고 社會化되며 人間的·文化的으로 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청년기의 정서적 특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정서의 성숙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키로 한다.

1) 青年期の 情緒的 特質

청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⁴⁾

- 1) 헤비거스트, 發達課業과 教育(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金在恩 譯(서울: 培英社, 1963), pp.51~112.
- 2) Luella Col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4, pp.4~7.
- 3) 윤진, 성인·노인 심리학(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pp.43~45.
- 4) 教師養成研究會 編, 青年心理學(日本: 學藝圖書株式會社, 1967), pp.42~43.

(1) 情緒의 強烈性: 청년기를 “疾風怒濤의 時期(storm and stress period)”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정서적 행동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기의 자아의식의 양양, 독립이나 해방의 욕구가 가정이나 사회적 제약을 무릅쓰고라도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 에너지에 대한 비유이다. 이 에너지는 外界에로만 향해지지 않고, 자기에 대한 劣等感이나 思想的 懷疑에도 역전하여 심각한 고민에서 죽음도 불사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도 달릴 수 있다.

(2) 間接的인 表出: 幼兒나 兒童의 정서적 반응은 외계의 자극에 대하여 直接的이지만, 青年期에는 행동의 社會的 效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間接的인 表出을 택하는 수가 많다.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하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뻐도 냉정을 지키려고 한다. 그리고 失戀의 心痛을 예술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전환시킬 수도 있다.

(3) 時間的으로 오래 끄는 氣分: 유아·아동의 정서는 抑制가 弱하기 때문에 爆發的이지만, 청년기에는 意識的인 抑制가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 등이 오래 끌게 되는 氣分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 욕구불만의 原因除去도 쉽지 않은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4) 極端的인 動搖: 명량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들떠 있던 자가 무엇인가의 어떤 사소한 자극으로 沈黙을 지키기도 하고, 의기양양한 상태가 조그만한 좌절로 인해 失意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아동기의 외향적인 경향에서 內向的인 傾向으로 옮겨가는 青年期에, 특히 이런 특징이 눈에 띄게 된다.

(5) 情操의 發達: 미적·도덕적·종교적·지적 등의 가치추구에 수반하는 정서를 情操(sentiment)라고 한다. 청년기의 생활경험은 知的인 發達에 따라서 심화확대되며, 미적·도덕적·종교적·지적인 정조를 경험함에 따라서 생활내용은 점차 풍부해진다. 청년의 생활경험이 이같은 정조를 수반함으로써 現實을 美化하고, 思想이나 行動을 理想的인 方向으로 통제하는 작용을 한다.

2) 情緒的 成熟

청년기의 정서는 과격하여 疾風怒濤의 時期이지만, 青年後期부터서는 점차로 완화된기 시작하면서 정서적 표현도 부드러워진다. 이 사실은 情緒的 緊張에 견딜 수 있는 힘과 自己統制의 힘이 增大된 결과로서, 일언요약해서 情緒的 成熟(emotional maturity)의 표현이다.

그런데, 情緒的으로 成熟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뜻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장이 있으나, 包括的으로 볼 때 情緒的 成熟의 基準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⁵⁾

- ① 아동다운 恐怖나 不安 등에서 벗어난다.
- ② 정서表現이 전체적·복합적인 것에서 필요에 따라 部分的인 表現을 취한다.
- ③ all or none 이란 반응에서부터 精密·複雜·微妙한 反應으로 변한다.

5) 桂廣介, 青年心理學(日本: 金子書房, 1969), pp.351~358.

- ④ 社會的 準則에 따른 정서의 표출형식을 취한다.
- ⑤ 정서의 표현수단으로서 間接的·社會的인 것을 이용할 수 있다.
- ⑥ 主我的인 정서적 반응에서 事態의 現實構造에 상응한 형식으로 정서를 表出할 수 있게 된다.
- ⑦ 자기를 客觀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즉, 不快한 現實을 직시하여 具體的인 改良의 方法을 다룰 수 있게 된다.
- ⑧ 시간적·공간적, 보다 綜合的으로 정서적 반응이 이루어진다.
- ⑨ 心理的 離乳가 이루어지고, 客觀的·自主的인 判斷을 내릴 수 있다.
- ⑩ 개인이 속한 작은 友人集團에서 탈피할 수 있다.
- ⑪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 대한 盲目的인 愛情이나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한 盲目的인 憎惡와 偏見을 갖지 않는다.
- ⑫ 集團作業에 참여하여 그 支配權을 잡지 않으면 同意하지 않는다는든가 또 退避하려는 일 없이 正常的인 關係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⑬ 자기의 사회적 처지나 대인적 입장에서 一定한 安定感을 갖고 있다.

이상이 情緒的 成熟의 規準으로서, 이 기준에 거의 도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만큼 情緒的으로 成熟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幼兒·兒童·青年·壯年期의 발달과정도 결국 이와 같은 成熟의 差異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獨立의 要求와 同僚關係

여기에서는 청년의 독립하려는 욕구로서의 심리적 이유와 반항 및 우인집단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1) 心理的 離乳

신체적 발달, 성적 성숙, 사고의 발달은 청년에게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청년은 양친이나 교사 등의 성인으로부터 獨立하기를 바라게 된다. 經濟的으로 계속 의존하는 자가 대부분이지만, 感情的으로는 독립의 요구가 강해지고 성인의 돌봄을 귀찮게 여기고 간섭에 반발하게 된다. 桂廣介⁶⁾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 의존관계에서부터 점차로 독립하여 독립에 대한 판단과 처지를 행할 수 있는 일개의 사회인이 되는 것을 心理的 離乳(psychological weaning)라고 불렀다. 이것이 청년기에 완성해야 할 발달과업의 하나이다. 이 사실은 마치 生理的 離乳(physiological weaning)가 乳幼兒의 보다 高次的인 身體的 發

6) 前掲書, pp.45~47.

達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이 心理的 離乳는 青年의 보다 高次的인 心理的·社會的 發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룩되지 않고서는 獨立된 判斷力을 지니고 責任能力을 지닌 個性은 형성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부모에의 의존에서 이탈에 必須的인 要因이 되는 것은 Ausubel⁷⁾에 의하면 ①사춘기에 달했다는 것, ② 부모측에서 아동의 2차적 지위를 철거하는 것, ③ 청년이 일차적 지위를 구하는 것에 부모 및 사회의 기대가 존재하는 것, ④ 성인의 역할을 하는 경험의 기회가 있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성인은 청년에게 한 사람의 독립된 成人으로서의 자각을 요구하지만, 어떤 때는 전과 같이 兒童取扱을 하여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청년의 이와 같은 성인과 아동과의 中間的 存在로서의 성격, 場의 理論 (field theory)을 주장했던 Lewin은 周邊人 (marginal man)으로서 특징지었다. Lewin은 청년의 이러한 특성에 기초해서 ① 場의 불명확성·불안정성에 유래하는 內氣 (shyness), 敏感性, 攻擊性, ② 여러 가지의 태도·가치관·이데올로기·생활양식의 다소 永續的인 葛藤, ③ 이러한 갈등에서 생기는 情緒的 緊張, ④ 태도와 행위가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쉽게 변하기 쉬운 用意性 등 청년의 心理的 特徵이 도출된다고 생각했다.⁸⁾

2) 第2의 反抗

청년기에서 성인의 兩面的 態度 (ambivalent attitude)에 대한 갈등과 청년의 自主性的 欲求는 第2 反抗을 유발시킨다. 이 시기의 反抗의 주된 두 개의 基本的인 發生條件으로서 精神의 自主性的 發達과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社會化的 不充分性을 들 수 있다.⁹⁾

첫째, 정신적·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自主性的 能力과 欲求 때문에 反抗현상이 일어난다. 兒童期까지는 선악의 가치기준이 부모나 교사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나 青年期에 이르면 그들의 생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모나 교사 이외의 각양 각층의 社會的 權威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또 이 時期는 성인의 의견보다는 同年輩의 친구들의 意見에 공명할 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타율적으로 지배받지 않고 自身의 判斷에 준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自主的이고 自律的인 行動에의 欲求가 강해진다.

둘째,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社會化的 未熟 때문에 反抗現象이 일어난다. 青年前期에서는 진정한 사회적 독립인으로서의 社會的 認識이 아직도 어렵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껍 참신하고

7) D.P. Ausubel, Theory and problems of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1954, pp.221.

8) K. Lewin, "Field theory and experiment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39, 44: pp.868~897.

9) 桂廣介, 前掲書, pp.69~74.

행동양식에 있어서 자못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곧잘 主觀性이 강한 獨斷에 말려 들어가기 쉽다. 그러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성인들과 意見對立이 생기기 쉽고, 既成人의 思考方式이란 그들의 눈에는 妥協的·因襲的·通俗的·封建的·保守的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을 自我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들은 自說을 고집하게 되고 기 성인들과 곧잘 抗爭을 벌이게도 된다.

그런데, 青年期 反抗은 發達過程과 樣態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⁰⁾

① 虛勢的 反抗: 주로 青年前期에 나타나는 형태로서, 不安과 劣等意識을 극복하려고 虛勢的인 태도를 보인다.

성인과 同一視하여 음주와 담배를 피운다든가, 변장을 하여 금지된 극장출입을 한다든가, 옷 사람의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닌다든가 또는 선생의 別名을 지어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한다.

② 英雄的 反抗: 青年中期에 나타나는 태도로서, 高校程度의 연령에 해당된다. 이 때는 어느 정도 自我를 자각하며, 지식과 사상이 심화되고 이상이 확립되어 理想과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하며, 그 태도도 당당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同盟休學이나 선생의 배척운동을 한다든지, 부모와 다투고 家出하는 행동도 한다.

한편, 크게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論理的 攻擊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行動과 思考가 情緒와 결부되어 있어, 感情的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항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면 난폭하고 파괴적이 되거나, 옷차림이나 걸음걸이 등도 이상하게 하여 남의 주목을 끌려고도 한다.

③ 論理的 反抗: 青年後期에 들어서면 反抗은 論理的으로 되고, 그리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의 형태는 그 대상이 커서, 思想的·社會的·政治的인 問題에 나타나게 된다.

個人的인 일에는 비교적 반항이 심하지 않고, 행동도 客觀化된다. 학교에서 강의가 신통치 않으면 出席도 적당히 하고 도서관에 간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合理的 行動을 추구하는 것 등은 그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 반항의 發生要因과 種類를 살펴보았다. 물론 過度한 反抗의 態度가 습성화되는 것은 人格形成上 좋지 않은 일이지만, 바람직한 발달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意味있는 反抗이란 청년기의 급격한 人格形成 過程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摩擦이며, 종래의 타율적 인격에서 自律的 人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不可避한 現象인 것이다. 따라서 반항의 發達心理學的 意義로서는 첫째 社會的 認識의 形成, 둘째 自己主觀性의 漸減, 셋째 意志의 訓練이란 점을 열거할 수 있다.¹¹⁾

10) 朴俊熙, 田贊和, 青年心理(서울: 凡文社, 1984), pp.95~96.

11) 桂廣介, 前掲書, pp.65~69.

3) 友人集團

이러한 청년의 성인에 대한 抵抗心과 아울러 性的 成熟과 過渡期的인 社會的 地位에서 오는 不安感은 청년에게 友人 및 同儕集團을 통해서 이를 해소시키려는 강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청년기에 있어서는 兒童期와는 다른 社會的 制約, 즉 “아직 성인은 아니다” “이미 아동은 아니다”라는 상반된 제약을 심하게 받지 않는 생활과 자기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생활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交友集團을 고르게 된다. 말을 바꾸면, 청년은 성인세계에서 아직 확고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代償的 地位를 확립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아동기에서의 照會體制 (frame of reference)는 青年期에서는 일단 버리게 되며, 繫留點 (anchorage)을 상실하면 방향을 잃기 쉽지만 友人集團이 이를 구제하는 새로운 照會體制를 마련해 준다.¹²⁾ 이러한 友人集團의 規範이 이루어짐으로써 사고·감정 및 행동의 면에서 이 時期에 빠지기 쉬운 不安感과 不確信感을 해방하게 하며, 양친에 대한 정서적 의존에 대신하는 基本的 安定感을 부여받게 된다. 선악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나 권위에 대한 반항에서도, 이 友人集團은 그 강고한 要塞의 역할을 다한다.

또 청년은 이 友人集團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協同과 競爭, 社會的 技能, 價値와 目的 등을 학습할 기회도 많아지며, 異性에 대한 欲求를 충족시키는 매체나 기회도 제공받는다.

이와 같이 우인집단은 청년의 中間的 地位 (adolescent interim status)의 주된 원천으로서의 欲求不滿을 경감하며, 이 移行期를 安定케 하는 效果를 갖고 있는 반면에, 集團과의 同一視가 他者指向的 (other-directed)인 경향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 소속집단이 非行傾向이 있는 집단일 경우에는 非行化를 촉진하기도 한다.¹³⁾

3. 異性關係

청년기는 異性에 대한 관심을 보다 본격적으로 넓히는 때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의 強化는 性的 知識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性的 感覺을 보다 활발하게 촉진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성적 발달에 따르는 性欲의 양진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자아의식의 발달에 의한 異性에의 接近欲에도 그 원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발달과정에 따른 異性接近의 樣態와 性에 대한 健全한 態度 育成을 위한 方案을 고찰하기로 한다.

1) 各 發達段階別 特性

異性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는 것은 발달에 따른 自然的 現象이지만, 男女 상호간에 異性을

12) D. P. Ausubel, op. cit., pp. 341~389.

13) 澤田慶輔 編, 青年心理學 (日本: 東京大學出版會, 1970), p. 11.

구하는 形態나 時期에는 個人差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發達上 그 樣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1) 青年前期의 特性: 이 時期는 性意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때이며, 女子들이 대개 初經을 맞이하는 때이기도 하다. 2次的 性特徵이 나타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否定的 傾向 (negative phase) 을 보인다. 이 경향 때문에 얼마동안 이성에 대한 반발적 경향이 강하여 이 시기를 異性에 대한 反撥時代 (sexual antagonism) 라고도 한다. 이성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대항하기도 하지만, 內心으로는 異性接近欲에 대한 逆表現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生理的 現象과 社會的 條件 때문에 女子들에게 심하게 나타난다.¹⁵⁾ 그리고 이 시기는 性的 倒錯現象과 年上의 동성이나 이성애의 思慕 및 男子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나타난다.

(2) 青年中期의 特性: 이 시기에는 異性과의 關係도 안정되며, 理想的인 異性을 사모하게 된다. 그 對象은 같은 연령층이 많으나, 年上者도 있게 된다. 우발적인 기회에 적극적인 戀愛關係가 생기나, 일반적으로 永續性은 없다. 예컨대 어떤 선택된 異性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자기앞에 나타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무조건 좋아하게 된다. 美國에서는 이 시기를 異性熱狂期 (boy-crazy, girl-crazy stage) 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男女는 거의 相互的 戀愛의 체험을 갖지만, 결혼까지 이끌어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처럼 戀愛의 體驗을 하지만 그 형태는 매우 精神的인 것이어서 친구의 기분이 포함되어 있어, 戀人과 異性의 親舊와의 分化가 확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애정도 知的이고 理想과 完全性이란 次元에서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性的 發達特徵의 하나는 精神的 戀愛의 意識이 강한 것이다. 정신적 연애는 흔히 platonic love 라고 하며, 醜聞의 讚美에서 나온 말로 肉慾的 욕망의 사랑이 아니고 超官能的인 것을 구하려는 情緒이다. 즉, 性欲의 만족과 人間의 美에 대한 讚美를 분리한 것이다. 青年에게는 性욕적 요구와 애정의 요구를 合一하는 것보다는 이성을 神聖한 것으로서 상대를 理想化하여 그 理想的인 모습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精神內容은 순수한 정서로부터 생기는 미적 체험이며, 이 美的 體驗이 platonic love 의 觀念적 세계에 향하여 가는 것이어서 여기에 청년 특유의 美와 哲學의 세계가 구성되어 간다.

Freud 는 이것을 승화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昇華 (sublimation) 란 근본적 성질에 있어 性的인 어떤 興味를 非性的인 興味, 즉 예술·운동 혹은 과학적 연구에로 전환시키는 것과

14) 鄭寅錫, 現代 青年發達心理學 (서울: 敎東文化社, 1980), pp.190~191.

閔榮順, 發達心理學 (서울: 敎育出版社, 1979), pp.324~327.

15) 서복연·이춘재, 바람직한 성적 적응의 지도 (서울: 中央學生指導研究所, 1970), pp.59~60.

같다.¹⁶⁾ Freud 에 의하면 승화란 하나의 性愛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과도한 흥분이 다른 영역으로 유출되어 응용되는 길이 열리고, 이것의 결과로 心的인 作業能力에 적지 않은 向上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은 성욕이 억압되면 藝術的·科學的 혹은 宗教的作用으로 전환되어 널리 社會적으로 용납될 뿐 아니라 또한 社會적으로 일정한 價値를 갖는다는 점에서, 특히 청년기에 있어서 性的昇華는 教育的 方向을 주는 데 意義가 있다.

(3) 青年後期の 特性: 이 시기는 中期特性의 연장이며, 또한 個人差도 현저하다. 이 시기의 性的인 것은 안정을 보이며, 자기에 대한 批判力도 증가하여 온다. 자기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異性과 同性의 친구 중에서 구하려는 경향도 생긴다. 따라서 자기가 理想으로 하는 戀人을 선택하게 되며, 둘만의 世界를 구성하여 집단으로부터 도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애정의 대상은 한 사람이며, 그 관계는 持續的이다. 그리고 愛情의 대상과 놀이의 대상·共同生活의 대상이 分化되어 戀人과 親舊와의 分化가 형성된다. 즉 친구와 연인과 並行的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異性關係에 있어서 서로 끌어들이는 힘의 要因이 용모와 같은 外形的인 것보다는 教養·性格·趣味 등과 같은 精神的인 要因으로 변해간다. 結婚觀은 現實的이고 生活爲主로 설계하지만, 이 시기에 결혼하는 것은 별로 흔하지 않다.

2) 健全한 性態도의 育成方案

우리의 周邊에는 젊은이의 건전한 異性觀과 性態도의 確立을 沮害하는 要因이 散在해 있다. 여기에서 性에 대한 健全한 態度를 기르기 위하여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 指導方案을 要略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 兩性的의 理解와 協力の 指導: 異性不信의 해소와 異性盲信이나 欺瞞의 태도를 불식하고, 이를 제몽하는 일이 필요하다. 건전한 남녀관계를 맺기 위하여서는 異性間에 서로 믿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호신뢰의 관계는 人間關係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편을 믿기 위하여서는 그를 理解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 그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대상의 personality의 特性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이해가 없이는 盲信과 獨占欲에 빠지기 쉽다. 연애가 遊戱化되거나 연애와 결혼을 分離해서 놀아나는 따위는 性的欺瞞과 利己欲에 기인한다. 異性不信과 盲信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깊은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 信賴의 태도를 기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2) 男女交際의 現代的 意義의 理解: 民主社會가 自由를 존중한다고 해서 男女交際도 청년

16) Herbert A. Carroll, Mental hygiene, 5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9, p.58.

17) 鄭寅錫, 前掲書, pp.104~106.

의 自由에 맡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그 의의가 박약하다. 민주사회에서 미혼남녀의 교제가 허용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結婚制度인 “兩性合意의 原則”과 “一夫一妻의 原則”이 준수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할 때다. 교제나 연애의 自由는 민주주의라는 生活哲學의 테두리 안에서의 自由이며, 각자의 民主性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異性을 선택하고 이를 결정하는 총명과 예지의 異性眼識을 기르는 일은 곧 성교육의 목적과 연결된다.

(3) 戀愛의 本質理解: 性欲과 戀愛感情의 區別·友情과 戀愛의 相違點·戀愛의 本質 등을 이해시키며, 이들의 혼동 때문에 빚어지는 性의 非行을 사전에 막는 일도 중요하다. 戀愛는 이성에 대한 愛情이며 性欲에 의해서 동기가 주어졌을 때 생기는 情緒의 일종으로서 그 근처에는 性欲이 깔려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애와 성욕을 分離시키지 않고 긴밀히 관련지어 다루는 점은 性教育上 중요한 內容이 된다.

(4) 社會的 淨化와 精神姿勢의 育成: 性教育의 效果를 위해서는 既成世代의 협력과 자각이 필요하다. 사회환경의 정화와 건전한 性文化와 도덕을 세워 나가는 기성세대의 生活態度를 필요로 하며, 기성세대에 대한 性教育의 必要性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질의 不良文化財의 추방, 퇴폐적인 習俗의 폐지와 개선, 지나친 性遊戲의 억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煽情的인 매스컴의 억제와 정화는 청년의 純潔性을 가꿔주는 데 중요한 환경조건이다. 적극적으로는 건전한 娛樂施設의 보급, 映画鑑賞指導, 讀書指導를 실시하여 건전한 異性觀과 性態度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5) 家庭·學校·社會의 男女協同의 實踐: 家庭에서의 兩親의 人間關係의 패턴은 女子世代의 夫婦關係의 패턴 형성에 영향을 준다. 즉, 양친관계가 相互尊重과 協力으로 충만해 있을 때, 여기서 바람직한 男性觀과 女性觀의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다. 學校에서도 男女教師 상호간의 人間關係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美德을 보일 때 학생들은 역시 건전한 男女關係를 배우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교사가 男女學生들의 協力的인 生活體制를 잘 만들어 줄 때(男女共學의 경우) 상호간의 性을 이해하게 되고 性을 純潔視하는 태도도 길러질 것이다.

社會에서도 一般 既成社會人들의 건전한 남녀관계가 중요하다. 인간의 가장 숭고한 性이 金權에 짓밟히는 人權蹂躪의 풍조하에서는 바른 性教育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既成世代들은 젊은이의 性道徳이 타락되었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렇게 물든 원인을 찾기 위하여 反省하여야 할 것이며, 成人들의 깨끗한 異性觀을 男女關係의 社會生活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發達의 加速化와 청년기의 延長化에의 趨勢는, 청년이 안고 있는 性의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주고 性을 人間性의 중요한 一部分으로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될 必要性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知的 生活의 特徵

青年期の 사고는 아동기에 비해서 論理的·抽象的·思索的·想像的이며, 이러한 思考의 特徵이란 청년의 지능·지식·신념·태도·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고의 특징을 만들어 주는 여러 認知的이고 情意的인 복합적 요소는 또한 청년의 知的 生活의 特徵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기는 다른 시기와 다른 質的인 認知構造의 差異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먼저 青年期の 認知的 發達의 특징을 개관한 후, 知的 生活의 특징을 검토하기로 한다.

1) 認知的 發達의 特徵

知的 發達段階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의 하나는 Piaget의 研究이다. 그의 이론은 感覺運動的 段階(출생~2세: 대상 영속성 발견)로부터 前操作的 段階(2~7세: 상징사용 시작)와 具體的 操作段階(7~12세: 보존개념 발달)를 거쳐서 形式的 操作段階(12세 이상~)에까지 진전하는 認知的·知的 成長의 단계를 묘사한다.¹⁸⁾

특히 청년기에 있어서 形式的 操作思考는 다음과 같은 能力을 포함한다. 즉,

- ① 고도의 抽象概念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假說을 설정하고 미래의 사건을 豫測할 수 있다.
- ③ 모든 가능한 개념의 組合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몇 개의 관련된 變因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¹⁹⁾

2) 知的 生活의 特徵

청년기의 일반적인 知的 生活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分析·檢討할 수 있다.²⁰⁾

① 青年의 思想은 공통적으로 時代的 特色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時代 精神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청년기만큼 현저한 시기는 없다. 이는 청년이 생활하는 시대나 사회의 조류에 敏感하며, 그 感染을 쉽게 받기 때문이며, 이런 특징은 청년의 강한 情緒的 感激性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② 청년의 사상은 抽象的 特色을 지닌다. 青年後期가 되면 抽象的·論理的인 思考가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서, 자연히 현실과 실재를 떠난 抽象的인 思想에 좌우되기 쉽다. 이 사실도 청년이 주로 理論展開와 概念的 思考를 중시하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③ 청년의 사상은 論理的 白晝夢에 떨어지기 쉽고, 言語上의 體系나 形式만으로 만족을 느

18) Ernest R. Hilgard and others: Introduction to psychology, 8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Inc., 1983, pp.69~72.

19) 金泰蓮·章輝淑, 발달심리학(서울:博英社, 1987), pp.248~250.

20) 鄭寅錫, 前掲書, pp.117~118.

끼고, 실제의 생활과 현실은 低級한 것으로 여겨 論理的·抽象的 理論을 존중시키는 경향이 짝다.

④ 청년의 사상은 복잡한 현실을 自己主觀的 尺度에 의해서 추정하거나, 또는 경험도 빈약하고 비좁은 理論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즉, 청년의 사상은 現實生活에 의해 단련되어 있지 않고, 社會生活에 기초를 두지 않는 자기만이 상정하고 있는 理想的인 社會를 尺度로 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청년의 純眞性이 있는 동시에, 이것이 또한 청년의 사상을 실제생활과 矛盾되게 한다.

⑤ 청년의 사상은 情熱的 特色을 지닌다. 理論은 일반적으로 냉철해야 하지만, 청년은 곧잘 감격에 말려서 情熱的으로 행동한다. 청년의 論理가 종종 感情論으로 끝나는 것도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⑥ 청년의 사상은 懷疑的이고 批判的이다. 兒童期에는 성인의 언행을 모방하는 同一視의 心理가 강하지만, 青年이 되면 성인의 행동이나 기성가치나 질서에 대해서 反駁하기 쉽고, 그 不合理性을 지적하여 자기의 사상이나 이상을 絶對視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회에서의 습관·도덕·법률에 대해서도 懷疑하기 쉽고 批判하기 쉽다.

⑦ 청년의 사상은 急進的·革命的이다. 청년은 현실을 부정하고 斬新한 것을 회귀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현재의 地位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心理는 청년의 地位向上에의 노력을 자주 하게도 하고, 또 現實改革의 욕구를 자주 하게도 한다.

5. 職業選擇

青年後期の 청년들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發達課業은 職業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準備를 하는 것이다. 직업선택의 문제는 과거에는 男性들에게만 중요한 문제였으나, 최근의 경향은 女性들에게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청년들은 직업선택에 따라 성인기의 生活方式는 물론 經濟的 能力과 社會的 地位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만족스러운 職業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런데 D. E. Super²¹⁾는 개인의 職業選擇은 그의 自我概念發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Super의 career 발달이론을 청년의 직업선택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自我概念的 發達과 職業選擇

Super에 의하면 개인의 職業選擇過程은 14세부터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그것에 대한 5개의 發達段階는 다음과 같다.

21) 瀨本孝雄 外 二人 編, 現代青年の心理と 行動(日本: 福村出版, 1985), pp.140~143.

① 成長段階(1~14세까지), ② 探索段階(15~24세), ③ 確立段階(25~44세), ④ 維持段階(45~64세), ⑤ 下降段階(65세 이상)로서, 第3段階까지의 概要는 <表Ⅲ-1>*과 같다.

<表Ⅲ-1> 職業的 發達段階

1. 가정과 학교에서의 중심인물과의 동일시에 의해서 자기개념이 발달한다. 이 단계의 초기에는 욕구와 공상이 지배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참가와 현실이미가 진행함에 따라서 흥미와 능력이 점차로 중요해진다.

- (1) 空想期(4~10세): 욕구가 지배적, 공상 속에서 역할실연이 중요
- (2) 興味期(11~12세): "좋아함"이 지망과 활동의 주된 결정인자.
- (3) 能力期(13~14세): 능력의 비중이 커진다. 직무의 소요조건(훈련 포함)을 고려함.

2. 探索段階(15~24세)

자기이미·역할시행 및 직업적 탐색이 학교·여가활동 및 part-time 노동에서 이루어진다.

- (1) 暫定期(15~17세): 욕구·흥미·능력·가치관·고용기회의 전부를 고려하게 된다. 잠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상·의론·과정 속에서 시도된다.
- (2) 移行期(18~21세): 청년이 노동시장 또는 전문적 훈련에 들어갈 때, 현실적인 고려에 비중을 두게 된다. 그리고 자기개념의 실현을 구하려고 한다.
- (3) 試行期(22~24세): 자기에게 적합한듯한 분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전문직무로 하여 장래의 생애직업으로 하려고 시도한다.

3. 確立段階(25~44세)

자기에게 적합한 분야를 찾아내어 항구적인 장을 쌓아올리려고 노력한다. 이 단계의 초기에는 그 일을 시행으로 그치어 다음의 일로 옮기는 자도 약간 있지만, 시행이 없이 처음부터 정착하는 자도 있다. 특히 전문적 직업에 있어서 그렇다.

- (1) 試行期(25~30세):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한 직업이 불만족한 것으로 느끼고 한두 번 전직한 뒤에 생애직업이 발견되든가, 전후 관련이 없이 직업이 연결된 것이 자기의 평생직업인 것으로 느끼게 된다.
- (2) 安定期(31~44세): 직업경력의 유형이 명백해지면, 그 직업세계에서 안정하여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나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창조적인 시기이다.

* 資料源: 瀧本孝雄 外 二人 編, 同掲書.

앞의 <表Ⅲ-1>에 의거해서 職業選擇에 관련된 Super의 지적을 個條式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成長段階의 기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概念은 청년기 이전에 형성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서 점차로 명백해지고, 직업적인 말로 치환된다.

둘째, 探索段階에서 보는 것처럼, 現實的 要因은 청년前期로부터 성인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업선택상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셋째, 개인이 들어가는 職業分野는 다음과 같은 것과 관련을 맺게 된다. ① 흥미 ② 가치관 ③ 욕구 ④ 역할모델과 동일시의 방법 ⑤ 자원 ⑥ 학력 ⑦ 지역사회의 직업구성·직업동향 등.

넷째, 각 직업에는 彈力性이 있어 동일직업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이 종사할 수 있고, 한 사람 혼자서 다른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다섯째, 직업으로부터의 滿足感과 生活上의 滿足은, 개인이 자기의 능력·흥미·가치관·성격 특성에 대한 배출구를 직업 속에서 발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섯째, 개인이 자기 직업에서 얻는 滿足度는, 그 자신이 自己概念을 어느 정도 實現했는가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상과 같은 Super의 指摘을 기초로 두 가지 問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職業選擇의 規準問題이고, 또 하나는 직업선택에 대하여 청년의 社會活動이 갖는 意味이다. 먼저 Super의 지적대로 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滿足度는 직업과 자신의 능력·흥미·성격과의 適合度에 의해서 크게 규정된다.李宗德 등²²⁾도 직업선택에서는 個人的 職業的인 適合性(vocational fitness)(① 능력적 요인 ② 인성적 자질 ③ 신체적 조건 ④ 직업적 흥미 ⑤ 가정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여기에 一致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職業興味에는 미술적·음악적·문학적·생물과학적·물상과학적·사업적·정치적·사회적·사무적·운동적 흥미因子가 발견되어²³⁾ 직업간의 흥미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흥미가 실무성적과 관계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도 직업과 학교선택에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다는 데에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조사결과는 많다.

그런데, 적성 이전에 職種이 아니라, 會社와 學校에 의해서도 직업과 학교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적성과 무관하게 成績과 學歷으로써 회사나 대학이 선택된다.

다음에, Super의 지적대로 직업선택은 청년기의 갖가지 활동을 통한 役割試行·自己吟味에 의해서 준비된다. 직업생활은 目的活動과 組織이라는 場에서의 活動이란 점에서 학교생활과는 判異하다. 따라서 청년이 넓게 사회적 관심하에서 진행케 하는 社會的 活動은 나중의 직업선택,

22)李宗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서울:教學圖書株式會社, 1962), pp.180~190.

23)정필모, 興味檢査方法 要綱(중·고·대·일반용)(서울: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1987), pp.7~8.

나아가서는 직업생활의 실질적인 기초를 닦는 결과가 된다. 이런 점에서 아르바이트·씨클활동·시민운동에의 참가·봉사활동의 지원 및 연구와 조사활동 등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6. 餘暇 및 娛樂

餘暇(leisure)란 학업이나 노동 등의 업무나, 수면이나 식사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내는 時間 이외에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時間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피로한 心身을 휴양시키고 다음의 生産을 위한 업무를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를 축적해야 할 時間이라는 意義를 갖고 있다.²⁴⁾ 그래서 여가의 機能으로 休息·氣分轉換·自己開發의 기능을 들 수 있다.²⁵⁾

여가를 회구하는 하나의 理由로는 現代라는 時代가 가져온 生活構造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는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現代人들도 일반적으로 여가에 대한 강한 欲求를 갖고 있다. 여가는 현대인에 있어서 勞動과 확실히 대립되는 概念인데, 단조롭고 個性을 발휘할 여유도 없이 쓸데없이 신경을 초조하게 하는 노동의 세계, 바로 그것은 非人間的이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종다양한 일상의 必要行動으로부터 해방되는 여가야말로, 人間性的 回復을 가능케 한다고 여길 수 있다. 한편 청년기는 발달상으로 보아, 인생의 어느 다른 시기보다도 自由와 解放을 강하게 바라는 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현대 청년의 餘暇에 대한 강한 欲求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청년기와 관련하여 여가활동의 종류를 검토한 후 건전한 오락의 기준을 살피고, 끝으로 독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술하기로 한다.

1) TV, 映畫 및 기타

첫째, TV의 등장은 종래의 청년의 餘暇生活의 方式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TV가 현저하게 보급되어 모든 가정에서 TV 시청이 생활의 一部分으로 되어 버린 현재는, TV 시청은 일상생활에서의 餘暇活動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젊은이의 경우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여기서 청년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과 그 영향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확실히 TV는 stress 해소와 새로운 정보전달이란 順機能이지만, 과도한 시청에서 학습능력의 저하와 가치관 형성의 왜곡 등 逆機能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選擇基準·부모의 態度·프로그램에 대한 解析과 코멘트 및 統制方法 등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²⁶⁾

그런데,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청년의 TV시청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렇다는 것은 청년에게는 집에 앉아서 그것을 보기 보다는, 더욱 매력적인 活動領域이 매우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4) 教育學辭典編纂委員會 編, 教育學大辭典(서울:教育科學社, 1979), p.667.

25) 金震燮 編, 現代餘暇論(大邱:螢雪出版社, 1982), pp.25~27.

26) 柳岸津, 人間發達新講(서울:文音社, 1987), pp.271~275.

둘째, TV보급은 상대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映畵를 보는 者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의 경우, 영화는 이전처럼 여가활동 중에서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조사된 결과는 없지만, 영화를 본다는 것은 TV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TV·영화 등의 mass media와의 접촉 이외에도 청년의 여가활동은多方面에 걸쳐 있다. 대학생들중에는 클럽활동이란 모습으로 연극이나 스포츠에 열중하는 者도 상당한 數에 이른다고 할 수 있고, 또 휴일을 이용한 hiking이나 등산·여행 등도 매우 일반적인 여가활동의 하나로 매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기는 內的으로는 에너지가 충일하고, 그 자체가 活動的인 時期이므로²⁷⁾ 靜的인 활동보다 動的인 活動을 더 즐길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2) 娛樂의 基準

다음에 여가활동으로서의 오락의 意義에 대해서 살펴보자. 오락은 各人各樣의 주관적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즐거움 그 자체를 目的으로 한 活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생활은 다종다양한 긴장이나 욕구불만을 가져오는 일이 많고, 그러한 不滿이나 緊張을 오락에 의해서 풀다는 것은 精神健康을 위해서 불가결한 인간의 임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柔軟性이 풍부한 청년시대에 餘暇를 훌륭히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幸福한 生活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락은 자칫하면 度를 넘기가 쉽고, 혹은 流行에 호르기도 쉬워, 참으로 recreation으로서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여기에서 건전한 餘暇善用法에 대해서 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의 네 가지 基準은 참고가 될 것이다.²⁸⁾

- ① 오락은 그것을 실시하는 個人에게 있어서 과장이 없이 즐거울 것이 필요하다.
- ②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의 均衡維持에 쓸모가 있고,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 형식과 정도
- ③ 오락생활의 누적적인 간접효과가 審美力·社交性·協力性·積極性·공통의 rule의 尊重心 등 바람직한 성격특성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 ④ 오락의 훈련에 따라서 시간과 함께 愉快함을 증가하여 가는 것일 것

3) 讀書指導

마지막으로, 독서지도에 대해서 언급해 본다. TV 출현이 청년의 文化生活의 본래방식에 큰 변혁을 초래케 했지만, 印刷미디어 (print media)의 重要性은 아직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일층 그 重要性을 더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27) 澤田慶輔 編, 前掲書, p.227.

28) 前掲書, p.193.

과학이나 철학·문학 등 높은 내용의 精神的 文化에 접촉하여 가는 通路로서는, 현대라 할지라도 역시 讀書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思春期를 지나면, 독서를 위한 시간이 적어진다고 한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 청년기에 들어오면 生活圈이 확대하여 여가 그 자체가 부족해져서 독서에 돌릴 수 있는 時間의 絶對量이 부족해진다는 것과, 둘째 關心의 狀態가 다양해져서 平均 독서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TV·라디오·영화 등 視聽覺的 미디어가 현저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 청년의 讀書生活의 貧困을 초래하기 쉽다고 부정할 수 없다. 問題는, 이 시청각적 미디어는 인쇄미디어가 갖지 않은 많은 長點도 있지만, 自力으로 깊게 思考하는 힘을 배양하는 데는 책보다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TV 세트를 바보箱子(idiot box)라고 하는 理由도 그것이 보는 사람의 認識의 눈을 흐리게 하고, 價値判斷의 基準을 모호하게 하며, 現實의 受容을 機械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기 쉬워, 그 결과 正常人을 白痴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²⁹⁾ 이런 점에서 可塑性(plasticity)이 풍부한 청년기에 책, 즉 과학·문학·철학 등을 통해서 위대한 賢人の 뛰어난 思想·슬기·知慧·勇氣에 접촉한다는 것은 건전한 精神的 形成을 위해서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청년이 생활하고 있는 讀書環境은 결코 좋지만은 않다. 저속한 읽을 거리의 氾濫은 진실로 가치있는 良書의 발견을 곤란케 함과 동시에, 힘들여 古典에 몰두하여 自己形成을 위한 讀書라는 習慣을 몸에 붙이는 것을 阻害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讀書環境의 整備과 함께 適切한 讀書指導가 절실히 요망된다.

7. 人生觀의 形成

인간이 일정한 人生觀을 갖는다는 것은, 人格의 統一的 形成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要件이다. 그런데 人生觀 형성의 기초는 태도와 가치관이기 때문에 態度和 價値觀이란 무엇이며, 青年期の 태도나 가치관의 特徵과 葛藤은 어떠하며, 人生觀 형성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社會過程에는 어떤 變因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態度和 價値觀의 定義

태도와 가치관은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짓는 內的인 行動性向이란 점에서 교육학을 비롯하여 다른 학문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가 되고 있다.

Allport³⁰⁾는 態度란 “개인이 관련을 맺는 모든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지시적

29) 鄭寅錫, 現代教育心理學(서울: 載東文化社, 1981), p.362.

30) G.W.Allport, Attitudes, in C. Murchi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Clark Univ. Press, 1935, pp.798~804.

혹은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에 의해서 체제화된 心的 및 神經的인 準備狀態(mental and neural state of readiness)라고 보았다. 그 외 Krech와 Crutchfield³¹⁾ 및 Campbell³²⁾ 등의 정의를 綜合해보면 ① 후천적인 學習을 통해서 형성되는 반응의 준비상태이며, ② 일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객체관계인 自己對 他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③ 가치나 好惡의 감정이 따르는 情動的 속성을 갖고 있으며, ④ 持續的인 性質을 갖고 있다. 換言하면, 태도는 認知的·感情的·行動傾向的 要素로 구성되어, 意見(opinion)·信念(belief)·觀念(idea)과도 다른 더 포괄적인 概念이다.

이러한 태도는 다시 수많은 사태 중에서 어떤 특정 대상과 상황에 일관된, 또는 공통된 행동성향으로서 발전할 때 價値觀(value orientation)을 형성하게 된다. 가치관이란 어떤 행동의 목표와 양식의 선택에서 그 與否와 程度를 판단할 때 작용하는 價値標準이며 行動標準이 되는 評價的 概念이다. 가치관도 경험을 통하여 學習된다는 점과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行動性向이란 점에서 태도와 類似한 뜻을 갖고 있으나, 가치관은 태도보다 더 包括的이고 보다 持續的이고 더 一般的이며 中心的인 뜻을 갖는 개념이다. 또 구성요소면에서 본다면 주로 認知的 要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태도는 보다 具體的이고, 가치관은 보다 抽象的이고 當爲的이고 社會的이고 文化的인 뜻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2) 青年期の 態度와 價値觀의 特徵 및 葛藤

(1) 態度나 價値觀의 特徵

여기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青年前·中·後期에 따르는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일반적으로 청년의 태도나 가치관에서 볼 수 있는 共通的인 特徵을 중심으로 약술하기로 한다.³³⁾

첫째, 合理主義的이다: 成人들은 사회의 관습이나 유행적이고 지배적인 생활태도로 보이는 慣習的 精神에 지배되어 있는 반면에, 青年은 合理的 精神에 따르려고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진정한 인식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理性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에 매달려 있어서, 타인의 생각이나 관례가 어떻든간에 자신의 合理的인 사고방식이나 正道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것을 부정한다. 이런 합리주의적인 태도는 부수적으로는 個人主義·絕對主義·懷疑主義의 경향마저 만들어주는 일면도 있다.

둘째, 主我主義的이다: 青年期는 自我와 社會가 융합되어 있지 않고 對立되어 있다. 따라

31) D. Krech & R. S. Crutchfield, Theory and Problem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48.

32) D. T. Campbell, The Generality of Social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California Berkeley, 1947.

33) 鄭寅錫, “現代 青年發達心理學”, 前掲書, pp.122~123.

서 청년은 인생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자아와 사회의 對立狀態로 보기가 쉽다. 그러기 때문에 청년은 자기가 인생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어느 한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急進主義的이고 極端主義的인 면을 보인다.

이상의 두 가지 特性의 교착적인 복합에 의해서 소위 主我的 合理主義 (subjective rationalism) 라는 특색이 나오게 된다. 즉, 청년은 合理的인 것을 잘망하면서도 그만큼 객관적인 것이 못하고 主觀的인 態度에 떨어지기 쉽다. 청년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예리하고 명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用意周到한 점이 부족하고, 또 철저한 것처럼 보이지만 獨斷에 떨어지기 쉽다. 그리하여 청년은 객관의 논리에 따르기 보다는 主觀的인 欲望이나 希望에 살려고 한다. 그 결과, 論理의 中斷과 反合理主義로 전환되어 버릴 계기를 다분히 안고 있다. 청년은 이같은 論理의 空白狀態를 정열·애정·정의감 같은 情緒的·倫理的인 것으로 보충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이 청년기의 특유한 “힘의 自負心”과 결합될 때에 反合理主義的이고 暴力的인 行爲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청년은 反合理主義的인 暴力行爲로 빛나갈 우려가 많으며, 合理主義的·非合理主義的인 過激으로 전락되기 쉽다. 여기에서 非合理主義란 성인의 관습적 정신과 같은 뜻이 아니라 훨씬 自我意識的이며, 일종의 理想主義이며, 合理主義의 逆表現인 것이다.

(2) 價値觀의 葛藤

社會變動은 현대사회의 특징이며, 이는 物質的인 면만 아니라 價値觀이나 行動樣式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變化는 世代에 따라 일어나는 速度에 차이가 있다. 特別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교통수단의 발달·매스콤의 발달과 보급 등은 젊은이들에게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세계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생활양식을 형성함으로써 자연 世代差의 問題를 가지고 온다. 다시 말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대속에서 살면서 동일한 西歐文化에 접하고 있지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현저한 隔差現象, 즉 同時的 存在의 非同時性 (the non-contemporaneity of the contemporaneous) 의 현상을 빚고 있다.³⁴⁾

이와 같은 세대차가 생기는 原因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心理-生理에서 찾을 수 있다. 즉 既成世代에는 ① 상대적 도덕규범이나 관습적 규범의 절대성, ② 불안과 이해관계, 젊은 世代에는 ① 심리-생리적 참신성과 사회관계에서의 참신성, ② 비판적 脫離性 (critical detachment), ③ 이해관계에 덜 개입, ④ 개방성과 진보성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³⁵⁾ 또 성인과 청년의 일반적인 대립이나 gap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要因으로 구분하는 學者도 있다. ① 時代狀況의 差異: 物質缺乏時代에 자랐던 세대와 經濟的으로 豐饒한 時代에

34) Karl Mannheim,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Reconstruction* (London: Kegan Paul, 1940), p.42.

35) 申銀淑, “世代間的 葛藤問題와 教育”, *教育學研究*, 第14卷 第1號 (1976), pp.61~65.

자란 세대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 ② 年齡에 따른 心理的 差異: 청년은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柔軟性을 갖고 있지만, 성인은 나이를 먹을수록 變化에 대한 抵抗이 커진다는 것, ③ 役割과 立場의 差異: 청년은 성인과 비교해서 自由에서 잃은 者가 아니며 주위에 配慮할 필요가 적다는 것이다.³⁶⁾

3) 人生觀의 形成

靑年期는 아동기적인 생활감정이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인식의 확대와 분화, 지적 생활의 심화 및 태도와 가치관이 확립되어감에 따라서 靑年期的인 人生의 意義와 行動原理·自己役割을 찾으면서 청년 특유의 각자의 人生觀을 형성한다. 이 인생관의 형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側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일상시의 生活經驗의 영향을 받아 인생관이 형성되는 측면과 社會化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後者의 立場, 다시 말해서 사회화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강화, 동일화,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³⁷⁾

(1) 強化: 청년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및 태도는 부모나 교사, 나아가서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 어떤 人生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強化를 받는다는 말이 된다. 인간이란 자기의 행동이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상찬을 받을 것 같으면, 否定的으로 받아들였을 경우보다는 그 행동에 대한 의욕도 높아지고 만족감을 느낀 나머지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할 확률도 높아져서, 이것이 계속될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行動의 基本原理와 價値基準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인생관의 변화나 형성에는 肯定的 強化만이 아니라, 또한 消極的 強化(negative reinforcement)도 그 有用한 방법의 하나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同一化: 이는 한 개인이 타인의 행동이나 여러 인간특성을 본뜨고(modeling), 모방하는 과정이다. 이때 동일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模型(model), 또는 被同化者(identificant)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model의 選定은 자기에게 의미있고 가치있고 유익했던 것이 된다. 또 그 대상에 있어서는 實在의 人物에만 한하지 않고 非現實的인 對象속에서 고르는 경우도 있다. Kelman³⁸⁾은 “同一化란 동일화하는 행동자체가 자기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인가 아니라, 他人이나 集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滿足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았다.

問題는 어떤 속성과 내용을 갖는 model을 선정하느냐에 있다. 젊은이들은 생활의 浪漫主義·理想主義·感傷主義·主我的 合理主義 속에서 젊은이의 멋과 인생의 매력을 만끽하려고 한다. 그래서 청년이 찾는 model이나 설정한 model이 때론 위험하고 퇴폐적인 것일 수도 있다.

36) 龍本孝雄 外二人 編, 前掲書, pp.128~129.

37) 鄭寅錫, 前掲書, pp.123~126.

38) H.C.Kelman, Process of opinion change, Publ. Opin. Quart., 1961.

뿌리깊은 나무처럼 건전한 人生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model 을 갖는 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모델의 구성과 멀리 떨어져서 이를 살피고 助言 指導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3) 態度의 均衡化: 人生觀 형성의 기초가 되는 態度의 均衡化 理論에 의해서 人生觀의 변화나 새로운 형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Rosenberg의 感情-認知 一貫性理論(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theory)³⁹⁾이나 Festinger의 認知的 不協和理論(cognitive dissonance theory)⁴⁰⁾은 그 대표적인 이론이다.

前者는 태도변화를 認知的 要素와 感情的 要素間的 關係에서 설명한 이론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대하여 갖는 신념·의견 등은 태도의 認知的 要素이며, 그것에 대한 느낌은 태도의 感情的 要素이다. 이 兩 要素가 一貫의일 때에 태도는 더욱 굳어지고 보다 지속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兩 要素가 非一貫의이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태도는 약화되어 새로운 均衡關係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태도가 變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태도를 形成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後者는 인지적 요소간에 생기는 불협화를 해소시켜 둘 이상의 認知的 要素가 一致한 協和(consonance)를 이루려고 한다는 理論과, 그리고 外的 行動을 변화시킴으로써 태도의 認知的·感情的 要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態度와 行動과의 關係가 언제나 均衡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理論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信念이나 意見과 일치하는 行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는 달리 자신의 認知的 要素와 相異한 行動을 하게 되면 이미 취한 행동에 一致한 方向으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認知와 行動의 均衡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均衡理論은 青年期の 人生觀 形成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즉, 젊은이들이 理想과 現實의 不一致, 苦悶間的 葛藤, 親子間的 對立, 思想的 不統一 등 여러 불협화 속에서 均衡과 協和를 통하여 어떤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고, 人生觀의 變化와 새로운 形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8. 正體感

青年期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또한 새로운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어떻게 對應해 나가야 할지 몰라서, 이 前段階까지 회의없이 받아들였던 自己存在에 대해 새로운 疑問과 探索이 시

39) M. J. Rosenberg & R. P. Abelson, An analysis of cognitive balancing, in C. I. Hovland & I. L. Janis (ed.),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Conn, Yale Univ. Press, 1960.

40) L.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New York, Harper & Row, 1957.

작된다. Erikson은 청년기의 중심과제를 自我正體感의 確立이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정체감의 의미와 형성과정, 역할실험 및 그 발달단계의 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正體感의 意味

青年後期の 청년들은, 또래집단의 가치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青年前期의 청소년들과는 대조적으로 個人的인 問題에 몰두한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은 물론, 과거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대관계를 재고려한다. Erikson은 정체감(identity)을 자기 자신의 獨特性에 대한 비교적 安定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이는 행동이나 사고 혹은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親熟한 것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과 一貫性이 있어야만 한다.

個人的 自我正體感은 4개의 基本的 次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人間的 次元: 각 개인은 인간이라는 느낌, ② 性別 次元: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느낌, ③ 個別性 次元: 각 개인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 ④ 繼續性 次元: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등이다.⁴¹⁾

Erikson은 청년기를 정체감을 획득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Newman, B.M.과 Newman, P.R.은 청년기를 集團 正體感(group identity) 形成과 個人的 正體感(personal identity) 形成의 2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⁴²⁾ 그들은, 청년들이 독특한 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기 이전에 또래들과의 집단 정체감을 먼저 형성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사춘기부터 18세까지의 기간을 集團 正體感 對 疎外의 時期로, 18세부터 21, 22세까지의 기간을 個人的 正體感 對 役割混亂의 時期로 명명하였다.

2) 正體感 形成過程

正體感 形成은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발달은 青年後期에서부터 성인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체감 形成은 세계와 자신에 대한 抽象的 思考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전기보다는 青年後期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青年前期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身體像(body image)에 대한 강한 관심과 또래集團의 受容이나 認定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적 정체감 확립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身體的·性的 成熟, 抽象的 思考能力의 發達, 그리고 情緒的 安定性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父母나 또래集團의 影響으로부터 어느 정도

41) C. J. Guardo & J. B. Boham, "Development of a sense of Self-identity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71, 42, pp.1909~1921.

42) 金泰蓮·章輝淑, 前掲書, p.284.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3) 役割實驗

청년후기의 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형식적 조작능력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다양한 役割實驗이다. 젊은이들은 역할실험 (role experimentation) 을 통하여 자신의 독특성을 인지하고, 자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관심을 탐색할 수 있다.⁴³⁾

그래서 이 역할실험의 과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즉 이 시기의 청년들은 방학동안 부업을 가져보기도 하고, 전공학문에 대하여 회의도 하며, 광범위한 독서와 백일몽을 한다. 직업 역할의 수행을 위한 준비는 물론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을 위하여 결혼문제, 이성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방식에 대해 심사숙고한다. 또한 청년들은 특정 종교에 몰두하기도 하고 개종을 고려해 보며, 도덕적 행동의 기본원리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정치이론에 관심을 갖고 특정의 정치집단을 옹호하기도 한다. 특히 大學環境은 청년들의 역할실험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大學生들은 역할수행이 요구하는 社會的 義務나 責任感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결과 體面損傷을 초래함이 없이 어떤 역할을 자유롭게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다.

Erikson은 정체감이 확립되기 이전의 실험기간을 心理-社會的 猶豫期間 (psycho-social moratorium) 이라고 명명하였다.⁴⁴⁾ 유예기간이란 개인의 정체감을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外部的 要求로부터 일시적으로 解放되는 기간이며, 決心을 延期하는 기간이다. 젊은이들은 이 유예기간 동안 그들의 개인적 힘과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역할이나 가치 혹은 신념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험한다. 어떤 청년들은 대학진학이나 직업선택 이전에 일년 정도의 기간동안 방랑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체감 확립을 위한 유예기간을 갖기도 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葛藤과 適應困難을 나타낼 만큼 이 유예기간을 겪어나가는 데 몹시 힘들어 하며, 정체감 혼미 속을 헤매다가 더러는 無正體感 (non-identity) 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成人들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價値觀이나 生活方式를 포기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不安해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多樣的 役割實驗 후에 보다 더 安定된 個人的 正體感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이 역할실험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지켜보고 격려하는 姿勢가 중요하다.

4) 自我正體感의 發達段階

Marcia에 의하면 正體感 獲得은 일종의 意思決定 過程으로서 직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

43) Ernest R. Hilgard and others, op.cit., p.95.

44) 鄭元植 外 二人, 現代教育心理學, 全訂版(서울: 教育出版社, 1984), pp.119~121.
鄭良殷, 心理學通論, 全訂版(서울: 法文社, 1982), pp.212~213.

적·철학적 이념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Marcia는 정체감의 획득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發達段階를 상정하고 있다.⁴⁵⁾

① 正體感 昏迷段階: 정체감 혼미 (identity confusion or diffusion) 단계에서는 뚜렷한 직업관이나 종교 및 정치관을 갖지 못한다. 청년은 이 시기까지 어떤 위기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사태와 부딪쳐서 어떤 결정·선택을 하려는 의욕도 갖지 못한다. 보통 青年前期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Erikson은 이를 病的으로 보려 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問題가 된다고 했다. 이런 증세에는 정체감의 미숙, 정체감의 미해결, 마약·알콜중독 등의 위기, 의식의 회피, 정신분열·자살 등 위기의식의 유보 등이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정체감의 혼미란 人生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단계의 청년들은 대개 자신의 現在와 過去를 分離시켜 思考하는 경향이 있고, 강한 不安이나 緊張感을 느끼며, 자기 態度나 人性에 懷疑를 품는 경향을 보인다.

② 正體感 未熟 또는 流失段階: 정체감 유실 (identity foreclosure)은 외형상으로 정체감을 뚜렷이 확립한 듯 보이나, 자기 힘으로 正體感 危機를 克服하지 못하는 缺陷을 지닌 단계이다. 예로서 父의 職業을 이어받아 그 후계자로서 社長이 되었다고 대답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런 청년은 늘 價値體系가 고착되어 있거나, 變動없는 태도를 지닌다. 그러나 他人의 의사나 조언에 얽매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흔히 독재자들이 完製品으로서의 正體感 (ready-made identity)을 제시하는데, 이는 곧 청년세대의 정체감 유실 또는 미숙을 낳게 된다. 그러나 민주사회체제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완제품이 아니라, 自製品의 正體感에 더 가치를 둔다. 결국, 정체감 미숙 또는 유실은 意思決定 過程에서 자신이 얼마나 主體的이 되느냐에 문제가 있다.

③ 正體感 猶豫段階: 유예 (moratorium)란 비상시 국가가 은행에서의 支拂停止를 명령하는 경제학 용어로서, Erikson은 여기에서 정체감 유예를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일정기간 停滯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였고, Mead도 일시적인 현상이기 보다는 뚜렷한 하나의 단계로 보아 청년기의 心理的 現象이라고 했다. 즉 유예기 동안 개인은 좀처럼 현재의 자기 위치를 바꾸려 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차원의 가치에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개혁사상, 종교적인 개종, 직업적인 轉職 등이 그 例가 된다고 했다.

Marcia의 1970년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의 약 30% 정도가 이 단계에 있는데, 親權 威意識이 낮고, 抵抗感·自信感·不安感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④ 正體感 確立段階: 정체감 확립 (identity achieved) 단계가 되면, 청년은 自我 完成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즉, 성인으로서 成熟과 發達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청년은 모든 것을 자기에 의하여 결정하고, 앞으로 종교·정치작업 등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45) 柳岸津, 前掲書, pp.299~301.

서는 청년이 수립한 세계관·인생관·가치관에 의거하여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조정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자기만의 未來를 창조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른 청년은 成就欲求가 높고, 目的意識이 분명하며, 反權威的이고 獨立的이고 適應力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상에서 Marcia는 정체감은 정체감 혼란의 下位段階에서부터 정체감 성취의 上位段階로 발달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즉, 역할혼란에서부터 정체감 유실이나 유예 혹은 획득으로의 이동은 發達로 간주되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이동은 退步로 간주된다. 정체감 획득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지불유예시기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일시적 퇴보는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中·高等學校 學生들은 정체감 유실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태도, 종교 그리고 직업선택 영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고교 3년생들이 정체감 획득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나 年齡增加가 반드시 정체감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3~14세의 청소년들과 19~24세의 청년들을 橫斷的으로 比較 研究한 結果, 後者가 자아정체의 모든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연령변인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大學生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縱斷研究 結果에 의해서도, 정체감 성취는 대학 1學年에서부터 4學年까지 증가되고 있었다. Waterman 등⁴⁶⁾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 1학년 시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危機의 時期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기를 긍정적이며 의미있는 수행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직업선택보다는 宗教問題나 政治的 理念에 대한 정체감 혼란으로 인해 深刻한 葛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IV. 態度 및 意識構造 調查 結果 및 分析

1. 전공 부적응과 전과문제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 4개 문항으로 설문하였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전공학과에 대한 선택동기와 만족도, 불만족도에 대한 이유 및 전공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설문동기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활의 개선과 교육방향을 제시 수립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믿으며 교육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고자 설문하였다.

46) 金泰蓮·章輝淑, 前掲書, p.288.

(1) 선택동기

전공학과를 선택한 동기가 무엇이나는 설문결과는 < 표 가-1 >과 같다.

전체별로 볼 때 적성과 흥미가 맞기 때문이 32.0%로 제일 높고, 그 다음 입학가능성 (22.4%), 직업적 전망(17.4%), 타인의 권유(10.65%)이며, 경제사정(6.5%), 기타(5.0%), 학과평판(3.9%), 사회적 공헌(2.2%)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표 가-1 > 학생이 전공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N(%)	N(%)	N(%)	N(%)	N(%)	N(%)	N(%)	N(%)	N(%)	N(%)	N(%)							
전체	324	(32.0)	176	(17.4)	227	(22.4)	40	(3.9)	22	(2.2)	66	(6.5)	107	(10.6)	51	(5.0)	1,013	(100)	
대학별	인문대학	81	(50.0)	14	(8.6)	41	(25.3)	3	(1.9)	0	(0.0)	1	(0.6)	10	(6.2)	12	(7.4)	162	(16.0)
	사회과학대학	58	(24.6)	58	(24.6)	36	(15.3)	15	(6.4)	9	(3.8)	5	(2.1)	37	(15.7)	18	(7.6)	236	(23.3)
	사범대학	85	(42.1)	10	(5.0)	31	(15.3)	7	(3.5)	5	(2.5)	31	(15.3)	28	(13.9)	5	(2.5)	202	(19.9)
	농과대학	40	(30.3)	25	(18.9)	44	(33.3)	3	(2.3)	2	(1.5)	5	(3.8)	8	(6.1)	5	(3.8)	132	(13.0)
	해양과학대학	16	(17.4)	29	(31.5)	22	(23.9)	0	(0.0)	3	(3.3)	11	(12.0)	7	(7.6)	4	(4.3)	92	(9.1)
	이공대학	44	(23.3)	40	(21.2)	53	(28.0)	12	(6.3)	3	(1.6)	13	(6.9)	17	(9.0)	7	(3.7)	189	(18.7)
성별	남	182	(29.2)	130	(20.9)	138	(22.2)	28	(4.5)	22	(3.5)	40	(6.4)	55	(8.8)	28	(4.5)	623	(61.5)
	여	142	(36.4)	46	(11.8)	89	(22.8)	12	(3.1)	0	(0.0)	26	(6.7)	52	(13.3)	23	(5.9)	390	(38.5)

무응답자 제외 (36)

- * 1.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에
- 2. 직업적 전망이 밝기 때문에
- 3. 입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4. 학과의 평판이 좋기 때문에
- 5. 사회적 공헌이 있기 때문에
- 6. 경제적 사정 때문에
- 7. 타인의 권유 때문에
- 8. 기타

대학별로 보면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은 인문대학에서 50.0%로 제일 높게 반응한 반면 해양과학대학은 17.4% 밖에 되지 않았다.

입학가능성에 대해서는 농과대학(33.3%)이 제일 높고,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15.3%)이 제일 낮았으며, 직업적인 전망에서는 해양과학대학(31.5%)이 제일 높고, 사범대학(5.0%)이 제일 낮았다.

성별로 보면, 적성과 흥미는 여학생(36.4%)이 남학생(29.2%)보다 높게 반응하였고, 입학가능성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직업적 전망에서는 남학생(20.9%)이 여학생(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우선 대학에 진학하고 보자는 학생들도 매우 많아 대학진로 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2) 만족도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 표 가-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다가 31.7%로 제일 높게 반응하였으며, 조금 만족한다 (31.2%), 조금 불만이다 (14.9%), 아주 만족하다 (14.5%), 아주 불만이다 (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합해 보면 만족하다는 쪽의 반응은 전체의 45.7%, 불만이라는 22.6%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만족하다는 쪽이거나 보통으로 나타났다.

< 표 가-2 > 학생의 현재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N (%)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149 (14.5)	320 (31.2)	325 (31.7)	153 (14.9)	79 (7.7)						1,026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20 (12.3)	48 (29.4)	54 (33.1)	30 (18.4)	11 (6.7)						163 (15.9)	$df=20$
	사 회 과 학 대 학	30 (12.6)	85 (35.7)	85 (35.7)	22 (9.2)	16 (6.7)						238 (23.2)	
	사 범 대 학	31 (15.3)	62 (30.7)	62 (30.7)	30 (14.9)	17 (8.4)						202 (19.7)	$\chi^2=27.83$
	농 과 대 학	23 (16.9)	43 (31.6)	37 (27.2)	25 (18.4)	8 (5.9)						136 (13.3)	N.S.
	해 양 과 학 대 학	16 (16.8)	21 (22.1)	25 (26.3)	24 (25.3)	9 (9.5)						95 (9.3)	
	이 공 대 학	29 (15.1)	61 (31.8)	62 (32.3)	22 (11.5)	18 (9.4)						192 (18.7)	
성 별	남	91 (14.4)	202 (32.0)	202 (32.0)	92 (14.6)	44 (7.0)						631 (61.5)	$df=4$ $\chi^2=1.67$
	여	58 (14.7)	118 (29.9)	123 (31.1)	61 (15.4)	35 (8.9)						395 (38.5)	N.S.

무응답자 제외 (23)

- * 1. 아주 만족한다. 2. 조금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조금 불만이다. 5. 아주 불만이다.

대학별로는 농과대학 (16.9%)이 아주 만족한다에서 높게 반응했고 조금 만족한다와 보통이다는 사회과학대학 (35.7%)이 높았으며, 해양과학대학 학생들이 조금 불만이다 (25.3%)와 아주 불만이다 (9.5%)에서 높게 반응하고 있다.

성별로는 만족하는 쪽의 반응에서 남학생 (46.44%)이 여학생 (44.6%)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반응항목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설문결과로 볼 때 대다수 학생이 불만보다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어느 쪽도 아닌 보통이다와 불만이다는 학생도 매우 높아 전공학과 선택에 있어서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불만족 이유

학생이 전공학과에 불만족하다면, 그 불만이유가 무엇이냐는 설문결과는 <표 가-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별로,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 (24.8%)가 제일 높게 반응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래의 전망(18.6%)으로 나타나 <표가-1>의 학과 선택동기 설문에서 있어서의 반응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흥미로우며, 그외의 반응을 보면 교과내용 빈약 (16.1%), 능력과 불일치 (14.6%), 일차 희망이 아니다 (13.3%), 학과 분위기가 나쁘다 (9.9%), 기타 (2.8%) 순으로 반응하였다.

< 표 가-3 > 만일 학생이 전공학과에 불만족하다면 그 불만 이유는?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N (%)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62 (13.3)	116 (24.8)	68 (14.6)	87 (18.6)	75 (16.1)	46 (9.9)	13 (2.8)				467 (100)	
대 학	인 문 대 학	14 (17.3)	10 (12.3)	13 (16.0)	15 (18.5)	22 (27.2)	5 (6.2)	2 (2.5)				81 (17.3)	$\chi^2=50.20$ $P < 0.01$
	사 회 과 학 대 학	14 (14.6)	28 (29.2)	16 (16.7)	12 (12.5)	13 (13.5)	7 (7.3)	6 (6.3)				96 (20.6)	
	사 범 대 학	11 (11.6)	22 (23.2)	14 (14.7)	20 (21.1)	21 (22.1)	6 (6.3)	1 (1.1)				95 (20.3)	
	농 과 대 학	11 (19.3)	17 (29.8)	4 (7.0)	10 (17.5)	5 (8.8)	8 (14.0)	2 (3.5)				57 (12.2)	
	해 양 과 학 대 학	3 (6.1)	10 (20.4)	9 (18.4)	14 (28.6)	5 (10.2)	8 (16.3)	0 (0.0)				49 (10.5)	
	이 공 대 학	9 (10.1)	29 (32.6)	12 (13.5)	16 (18.0)	9 (10.1)	12 (13.5)	2 (2.2)				89 (19.1)	
성 별	남	35 (12.3)	69 (24.3)	43 (15.1)	61 (21.5)	36 (12.7)	31 (10.9)	9 (3.2)				284 (60.8)	$df=6$ $\chi^2=10.30$ N.S.
	여	27 (14.8)	47 (25.7)	25 (13.7)	26 (14.2)	39 (21.3)	15 (8.2)	4 (2.2)				183 (39.2)	

- * 1. 일차 희망이 아니다. 2. 적성과 취미에 맞지 않다. 무응답자 제외 (579)
3. 능력과 불일치하다. 4. 장래의 전망이 어둡다.
5. 교과 내용이 빈약하다. 6. 학과 분위기가 나쁘다.
7. 기타

대학별로는 인문대학이 교과내용 빈약 (27.2%), 장래 전망이 어둡다 (18.5%), 일차 희망이 아니다 (17.3%), 능력과 불일치 (16.0%) 순이며, 사회과학대학은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 (29.2%), 능력과 불일치 (16.7%), 일차 희망이 아니다 (14.6%), 교과내용 빈약 (13.5%), 사범대학은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 (23.2%), 교과내용 빈약 (22.1%),

장래 전망이 어둡다 (21.1 %), 능력과 불일치 (14.7 %), 농과대학은 적성과 취미가 맞지 않는다 (29.8 %), 일차 희망이 아니다 (19.3 %), 장래 전망이 어둡다 (17.5 %), 학과 분위기가 나쁘다 (14.0 %), 해양과학대학은 장래 전망이 어둡다 (28.6 %), 적성과 취미가 맞지 않는다 (20.4 %), 능력과 불일치 (18.4 %), 학과 분위기가 나쁘다 (16.3 %) 순이며, 이공대학은 적성과 취미가 맞지 않는다 (32.6 %)가 다른 대학보다도 매우 높게 반응하였고, 장래 전망이 어둡다 (18.0 %), 능력과 불일치, 학과 분위기가 나쁘다 (13.5 %) 순으로 나타나 대학간 반응 순위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장래 전망이 어둡다에서 남학생 (21.5 %)이 여학생 (14.2 %)보다 높았고, 교과내용의 빈약에서는 여학생 (21.3 %)이 남학생 (12.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외의 반응 항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를 볼 때, (1)번 학과 선택동기에서 적성과 흥미 때문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 (32.0 %)을 제외한 입학가능성이나 직업적 전망 등으로 전공학과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진학 후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전과 여부

< 표 가 -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에게 전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과하겠다는 학생

< 표 가 - 4 > 만일 학생에게 전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x^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240 (46.6)	161 (31.3)	114 (22.1)								515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35 (40.2)	33 (37.9)	19 (21.8)								87 (16.9)	$df=10$ $x^2=21.25$ $P<0.01$
	사 회 과 학 대 학	45 (41.3)	41 (37.6)	23 (21.1)								109 (21.2)	
	사 범 대 학	37 (36.6)	31 (30.7)	33 (32.7)								101 (19.6)	
	농 과 대 학	40 (59.7)	16 (23.9)	11 (16.4)								67 (13.0)	
	해 양 과 학 대 학	33 (58.9)	15 (26.8)	8 (14.3)								56 (10.9)	
	이 공 대 학	50 (52.6)	25 (26.3)	20 (21.1)								95 (18.4)	
성 별	남	153 (48.9)	92 (29.4)	68 (21.7)								313 (60.8)	$df=2$ $x^2=1.84$ N.S.
	여	87 (43.1)	69 (34.2)	46 (22.8)								202 (39.2)	

* 1. 전과하겠다. 2. 전과하지 않겠다. 무응답자 제외 (531)
3. 모르겠다.

(46.6%)이 전과하지 않겠다는 학생(31.3%)보다 많은 것은 입학시 잘못된 학과 선택에 의한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입시관리에서 나타나는 단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대학별로 보면 농과대학의 59.7%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고 있으며, 입학시 고득점자가 많은 사범대학은 36.6%로 제일 적게 전과를 희망하고 있다.

<표 가-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48.9%)이 여학생(43.1%)보다 전과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외의 결과를 볼 때 대다수 학생(46.6%)이 전과를 희망하고 있어 대학 진학에 있어서 진로결정에 대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상담, 입시제도의 개선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교우관계 문제

이 설문에서는 친구와의 원만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의 유무 및 그 이유, 친구와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5개 문항을 설문하였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대인관계 형성에 따라 자신의 2차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친구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은 학생들이 대답한 친구관을 통계자료로 하여 앞으로 학생들의 성격 및 심리 상담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원만도

학생은 현재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외 <표 나-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 학생(75.2%)이 원만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별로는 이공대학(81.6%)이 원만도가 제일 높게 반응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76.4%), 해양과학대학(75.3%), 사범대학(75.0%), 인문대학(72.7%), 농과대학(68.1%) 순으로 반응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76.7%)이 여학생(72.9%)보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원만도가 높게 반응하였으나, 여학생의 72.9% 반응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이 설문결과를 보면 대다수 학생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지내고 있어 매우 좋은 현

< 표 나 - 1 > 학생은 현재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747 (75.2)	246 (24.8)									993 (100)	
대 학	인 문 대 학	117 (72.7)	44 (27.3)									161 (16.2)	$df=5$ $\chi^2=8.23$ N.S.
	대 사회과학대학	178 (76.4)	55 (23.6)									233 (23.5)	
	사 범 대 학	144 (75.0)	48 (25.0)									192 (19.3)	
	농 과 대 학	92 (68.1)	43 (31.9)									135 (13.6)	
	별 해양과학대학	70 (75.3)	23 (24.7)									93 (9.4)	
	이 공 대 학	146 (81.6)	33 (18.4)									179 (18.0)	
성 별	남	467 (76.7)	142 (23.3)									609 (61.3)	$df=1$ $\chi^2=1.60$ N.S.
	여	280 (72.9)	104 (27.1)									384 (38.7)	

* 1. 원만한 편이다. 2. 어려움이 있다. 무응답자 제외 (53)

상이라 할 수 있다.

(2) 친구관계의 어려운 이유

만일 친구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 표 나 - 2 >에 나타난 것과 같다.

전체별로 보면,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경우가 39.5%로 제일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사교성 부족(24.3%), 열등감(18.5%), 기타(10.7%), 우월감(7.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사회과학대학이 소극적인 태도가 이유라는 대답이 50.9%가 되는 반면, 이공대학은 22.9%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교성 부족은 이공대학(31.4%)이 높게 반응했고, 사범대학(21.3%)이 낮게 반응했다. 열등감으로 인한 경우는 농과대학(24.4%)이 제일 높은 반면에 사회과학대학(9.1%)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42.0%)이 남학생(37.8%)보다 소극적인 태도가 친구관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이유였다는 대답을 했고, 남학생의 경우는 열등감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어려웠다는

< 표 나 - 2 > 만일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x^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96 (39.5)	59 (24.3)	45 (18.5)	17 (7.0)	26 (10.7)						243 (100)	
대	인문대학	17 (41.5)	10 (24.4)	7 (17.1)	1 (2.4)	6 (14.6)						41 (16.9)	$df=20$
	사회과학대학	28 (50.9)	12 (21.8)	5 (9.1)	2 (3.6)	8 (14.5)						55 (22.6)	
	사범대학	17 (36.2)	10 (21.3)	10 (21.3)	3 (6.4)	7 (14.9)						47 (19.3)	$x^2=21.92$
	농과대학	17 (41.5)	9 (22.0)	10 (24.4)	3 (7.3)	2 (4.9)						41 (16.9)	N.S.
	해양과학대학	9 (37.5)	7 (29.2)	5 (20.8)	3 (12.5)	0 (0.0)						24 (9.9)	
	이공대학	8 (22.9)	11 (31.4)	8 (22.9)	5 (14.3)	3 (8.6)						35 (14.4)	
성	남	54 (37.8)	34 (23.8)	29 (20.3)	14 (9.8)	12 (8.4)						143 (58.8)	$df=4$
	여	42 (42.0)	25 (25.0)	16 (16.0)	3 (3.0)	14 (14.0)						100 (41.2)	$x^2=6.49$ N.S.

무응답자 제외 (803)

- * 1.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 2. 사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 3.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 4.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 5. 기타

대답이 여학생보다는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사교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남·여학생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3)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의 유무

< 표 나 - 3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77.7%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인문대학이 80.5%로 높게 반응하였고, 그 다음으로 농과대학(79.1%), 사회과학대학(77.5%), 사범대학(77.2%), 이공대학(76.2%), 해양과학대학(75.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82.1%)이 남학생(75.0%)보다 높게 반응하였다.

설문결과를 볼 때, 개인주의적이고 분업화된 각박한 현 사회구조에서 자신의 얘기를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절친한 친구를 대부분 학생이 갖고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표 나-3 〉 현재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chi^2 - test$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인원 N (%)	
전	체	786 (77.7)	225 (22.3)									1,011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132 (80.5)	32 (19.5)									164 (16.2)	$df = 5$ $\chi^2 = 1.36$ N.S.
	사 회 과 학 대 학	183 (77.5)	53 (22.5)									236 (23.3)	
	사 범 대 학	152 (77.2)	45 (22.8)									197 (19.5)	
	농 과 대 학	106 (79.1)	28 (20.9)									134 (13.3)	
	해 양 과 학 대 학	72 (75.8)	23 (24.2)									95 (9.4)	
	이 공 대 학	141 (76.2)	44 (23.8)									185 (18.3)	
성 별	남	465 (75.0)	155 (25.0)									620 (61.3)	$df = 1$ $\chi^2 = 6.58$ $P < 0.05$
	여	321 (82.1)	70 (17.9)									391 (38.7)	

* 1. 있다. 2. 없다. 무응답자 제외 (35)

(4)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의 장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드느냐는 질문에 < 표 나-4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친구의 넓은 이해심에 의해서라는 대답이 (28.2%) 제일 높게 반응했고, 그 다음으로 원만하고 명량한 성격 (22.5%), 자신과 비슷한 성격이어서 (18.5%), 정직성 (14.4%) 순으로 반응했고, 적극성·활동성 (8.4%), 근면성 (3.7%), 기타 (3.4%), 탁월한 능력 (1.0%)은 낮게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넓은 이해심은 농과대학(34.7%)이 높게 반응했고, 원만하고 명량한 성격으로 인해서는 이공대학 (26.6%), 비슷한 성격은 사범대학 (26.4%), 정직성은 해양과학대학(17.9%)이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반응했다.

성별로는 여학생 (33.1%)이 남학생 (25.1%)보다 친구의 넓은 이해심으로 인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대답에 높은 반응을 보였을 뿐 그외의 항목에서는 뚜렷한 남·여 학생이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로 볼 때 대부분 학생이 넓은 이해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친구, 같이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나-4 > 만일 그런 친구가 있다면, 친구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x^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60 (28.2)	207 (22.5)	133 (14.4)	77 (8.4)	34 (3.7)	9 (1.0)	170 (18.5)	31 (3.4)			921 (100)	
대학별	인문대학	50 (32.9)	38 (25.0)	19 (12.5)	10 (6.6)	5 (3.3)	1 (0.7)	28 (18.4)	1 (0.7)			152 (16.5)	$df=35$ $x^2=49.44$ $P<0.05$
	사회과학대학	46 (21.9)	43 (20.5)	29 (13.8)	24 (11.4)	13 (6.2)	1 (0.5)	43 (20.5)	11 (5.2)			210 (22.8)	
	사범대학	49 (28.2)	34 (19.5)	21 (12.1)	13 (7.5)	2 (1.1)	1 (0.6)	46 (26.4)	8 (4.6)			174 (18.9)	
	농과대학	43 (34.7)	25 (20.2)	19 (15.3)	8 (6.5)	5 (4.0)	4 (3.2)	16 (12.9)	4 (3.2)			124 (13.5)	
	해양과학대학	23 (27.4)	20 (23.8)	15 (17.9)	6 (7.1)	3 (3.6)	0 (0.0)	15 (17.9)	2 (2.4)			84 (9.1)	
	이공대학	49 (27.7)	47 (26.6)	30 (16.9)	16 (9.0)	6 (3.4)	2 (1.1)	22 (12.4)	5 (2.8)			177 (19.2)	
성별	남	142 (25.1)	126 (22.3)	86 (15.2)	56 (9.9)	22 (3.9)	8 (1.4)	101 (17.9)	24 (4.2)			565 (61.3)	$df=7$ $x^2=16.50$ $P<0.05$
	여	118 (33.1)	81 (22.8)	47 (13.2)	21 (5.9)	12 (3.4)	1 (0.3)	69 (19.4)	7 (2.0)			356 (38.7)	

- * 1. 넓은 이해심
3. 정직성
5. 근면성
7. 나와 비슷한 성격

2. 원만하고 명량한 성격
4. 적극성, 활동성
6. 탁월한 능력
8. 기타

무응답자 제외 (125)

(5) 대화내용

친구관계에 있어서 주로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표 나-5>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 학생 (60.3%)이 현실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학별로는 인문대학 학생의 66.7%가 현실문제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대학 (62.0%), 사범대학 (61.7%), 사회과학대학 (59.2%), 이공대학 (57.7%), 농과대학 (5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여학생 (62.1%)이 남학생 (59.1%)보다 현실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문제에 대해서는 남학생 (12.5%)이 여학생 (8.0%)보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로 볼 때, 현실문제가 대부분 학생이 주된 대화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의 입시위주의 학교 생활에서 대학진학 후에는 자신의 2차적인 환경이라 볼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표 나-5 〉 그런 친구와의 대화는 주로 ?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N (%)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98 (10.8)	35 (3.9)	546 (60.3)	94 (10.4)	23 (2.5)	110 (12.1)					906 (100)	
대학	인문대학	11 (7.3)	7 (4.7)	100 (66.7)	14 (9.3)	2 (1.3)	16 (10.7)					150 (16.6)	$df = 25$
	사회과학대학	25 (11.7)	8 (3.8)	126 (59.2)	24 (11.3)	4 (1.9)	26 (12.2)					213 (23.5)	
	사범대학	15 (8.6)	4 (2.3)	108 (61.7)	15 (8.6)	4 (2.3)	29 (16.6)					175 (19.3)	$\chi^2 = 21.00$
	농과대학	15 (12.4)	3 (2.5)	66 (54.5)	16 (13.2)	5 (4.1)	16 (13.2)					121 (13.4)	N.S.
	해양과학대학	8 (10.1)	3 (3.8)	49 (62.0)	8 (10.1)	2 (2.5)	9 (11.4)					79 (8.7)	
	이공대학	24 (14.3)	10 (6.0)	97 (57.7)	17 (10.1)	6 (3.6)	14 (8.3)					168 (18.5)	
성별	남	70 (12.5)	24 (4.3)	330 (59.1)	54 (9.7)	19 (3.4)	61 (10.9)					558 (61.6)	$df = 5$
	여	28 (8.0)	11 (3.2)	216 (62.1)	40 (11.5)	4 (1.1)	49 (14.1)					348 (38.4)	$\chi^2 = 11.76$ $P < 0.05$

* 1. 학습 (학업) 문제 2. 독서문제 무응답자 제외 (140)
 3. 현실문제 4. 이성문제
 5. 스포츠 문제 6. 기타

3. 이성 및 성 문제

이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이성교제의 유무, 대상, 선정기준, 접촉계기, 이성교제의 필요성,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 등 6개 문항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문을 제시하였다.

이 설문은 대학생들이 현재 어떤 계기로 이성을 만나고, 그 대상과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이성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그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이성관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1) 이성교제 유무

〈 표 나-1 〉에서 처럼 전체 학생의 44.9%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과학대학의 경우는 52.4%로 과반수가 이성교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대학은 반응순위를 보면 사범대학 (48.9%), 농과대학 (46.6%), 이공대학 (44.9%)

사회과학대학(43.9%), 인문대학(35.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이성과 교제중인 남학생이 과반수(49.1%)에 가까운 반면, 여학생(38.0%)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표 다-1 > 학생은 현재 이성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N (%)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430 (44.9)	528 (55.1)									958 (100)	
대 학 별	인문대학	55 (35.7)	99 (64.3)									154 (16.1)	$df=5$ $\chi^2=8.62$ N.S.
	사회과학대학	98 (43.9)	125 (56.1)									223 (23.3)	
	사범대학	92 (48.9)	96 (51.1)									188 (19.6)	
	농과대학	61 (46.6)	70 (53.4)									131 (13.7)	
	해양과학대학	44 (52.4)	40 (47.6)									84 (8.8)	
	이공대학	80 (44.9)	98 (55.1)									178 (18.6)	
성 별	남	292 (49.1)	303 (50.9)									595 (62.1)	$df=1$ $\chi^2=10.70$ $P<0.01$
	여	138 (38.0)	225 (62.0)									363 (37.9)	

* 1.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

무응답자 제외(88)

2.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설문 결과로 보았을 때, 이성교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대 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성관에 대한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대상선정 기준

< 표 다-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교제시 이성대상 선정기준을 대다수 학생(64.3%)이 상대방의 성격을 들고 있다.

그 외에 생활능력(8.0%), 외모(7.5%), 기타(6.1%), 장래성(5.2%), 학력정도(4.0%), 건강(2.3%), 종교(1.9%), 가문(0.7%) 등은 매우 낮은 반응을 보였다.

대학별 반응을 보면 사범대학에서는 73.0%가 성격을 택했으며, 타 대학은 이공대학(72.7%), 사회과학대학(62.9%), 인문대학(61.4%), 농과대학(61.4%), 해양과학대학(56.1%)

순으로 반응하였고, 그의 반응항목에서 생활능력은 이공대학(13.4%)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반응에서는 농과대학이(14.0%)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표 다-2 > 만일 이성과 교제한다면, 이성의 대상을 선정하게 될 기준은?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구분	인원												
전 체		274 (64.3)	34 (8.0)	17 (4.0)	32 (7.5)	10 (2.3)	8 (1.9)	3 (0.7)	22 (5.2)	26 (6.1)		426 (100)	
대 학	인 문 대 학	35 (61.4)	6 (10.5)	2 (3.5)	2 (3.5)	0 (0.0)	0 (0.0)	0 (0.0)	4 (7.0)	8 (14.0)		57 (13.4)	$\chi^2=68.94$ $P<0.01$
	사 회 과학 대 학	61 (62.9)	7 (7.2)	3 (3.1)	7 (7.2)	3 (3.1)	2 (2.1)	2 (2.1)	1 (1.0)	11 (11.3)		97 (22.8)	
	사 범 대 학	65 (73.0)	5 (5.6)	1 (1.1)	2 (2.2)	1 (1.1)	5 (5.6)	1 (1.1)	7 (7.9)	2 (2.2)		89 (20.9)	
	농 과 대 학	35 (61.4)	2 (3.5)	2 (3.5)	8 (14.0)	2 (3.5)	0 (0.0)	0 (0.0)	6 (10.5)	2 (3.5)		57 (13.4)	
	해 양 과학 대 학	32 (72.7)	3 (6.8)	4 (9.1)	4 (9.1)	0 (0.0)	0 (0.0)	0 (0.0)	1 (2.3)	0 (0.0)		44 (10.3)	
	이 공 대 학	46 (56.1)	11 (13.4)	5 (6.1)	9 (11.0)	4 (4.9)	1 (1.2)	0 (0.0)	3 (3.7)	3 (3.7)		82 (19.2)	
성 별	남	185 (64.2)	21 (7.3)	12 (4.2)	26 (9.0)	9 (3.1)	5 (1.7)	3 (1.0)	17 (5.3)	10 (3.5)		288 (67.6)	$\chi^2=18.17$ $P<0.05$
	여	89 (64.5)	13 (9.4)	5 (3.6)	6 (4.3)	1 (0.7)	3 (2.2)	0 (0.0)	5 (3.6)	16 (11.6)		138 (32.4)	

* 1. 성격 2. 생활능력 3. 학력정도 4. 외모 5. 건강 6. 종교 7. 가문 8. 장래성 9. 기타 무응답자 제외 (620)

또한 무반응 항목은 농과대학에서 제일 많았고(4개 항목), 사회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은 모든 항목에서 반응하였다.

성별로는 외모에서 남학생(9.0%)이 여학생(4.3%)보다 높게 반응한 반면, 기타항목은 여학생(11.6%)이 남학생(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의 항목은 별차이가 없었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와 교제를 원하고 있으며, 외부로 느끼는 생활능력 및 외모 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접촉계기

< 표 다-3 > 과 같이, 이성교제를 우연한 기회(40.5%)로 접촉하였다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학교에서(19.7%), 친구의 소개(17.6%)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3.5%라는 낮은 반응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의 올바른 인식과 교

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다-3 > 만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성과 접촉하게 된 계기는?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42 (9.8)	26 (6.1)	75 (17.6)	173 (40.5)	15 (3.5)	84 (19.7)	12 (2.8)				427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11 (19.3)	0 (0.0)	7 (12.3)	17 (29.8)	4 (7.0)	15 (26.3)	3 (5.3)				57 (13.3)	$df=30$ $\chi^2=46.03$ $P<0.05$
	사 회 과 학 대 학	8 (8.4)	5 (5.3)	22 (23.2)	41 (43.2)	1 (1.1)	13 (13.7)	5 (5.3)				95 (22.2)	
	사 범 대 학	10 (11.1)	3 (3.3)	13 (14.4)	40 (44.4)	2 (2.2)	20 (22.2)	2 (2.2)				90 (21.1)	
	농 과 대 학	6 (10.3)	2 (3.4)	13 (22.4)	21 (36.2)	3 (5.2)	12 (20.7)	1 (1.7)				58 (13.6)	
	해 양 과 학 대 학	2 (4.4)	6 (13.3)	7 (15.6)	20 (44.4)	0 (0.0)	9 (20.0)	1 (2.2)				45 (10.5)	
	이 공 대 학	5 (6.1)	10 (12.2)	13 (15.9)	34 (41.5)	5 (6.1)	15 (18.3)	0 (0.0)				82 (19.2)	
성 별	남	21 (7.2)	21 (7.2)	59 (20.3)	120 (41.2)	11 (3.8)	51 (17.5)	8 (2.7)				291 (68.1)	$df=6$ $\chi^2=14.56$ $P<0.05$
	여	21 (15.4)	5 (3.7)	16 (11.8)	53 (39.0)	4 (2.9)	33 (24.3)	4 (2.9)				136 (31.9)	

- * 1. 씨클활동을 통해서 2. 미팅파트너 무응답자 제외 (619)
3. 친구의 소개 4. 우연한 기회에
5. 가정에서 6. 학교에서
7. 기타

대학별 반응을 보면 우연한 기회에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학생이 사범대학과 해양과학대학에서 44.4%로 제일 높게 반응하였고, 인문대학은 29.8%로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에서는 인문대학(26.3%)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과학대학(13.7%)은 낮게 나타났다. 친구의 소개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사회과학대학이 제일 높고(23.2%), 인문대학이 제일 낮으며, 씨클활동을 통해서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인문대학(19.3%)이 아주 높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씨클활동을 통한 교제는 여학생(15.4%)이 남학생(7.2%)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팅파트너와 친구의 소개로 인한 교제는 남학생이 많았으며 학교에서의 교제는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반응하였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생이 목적의식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없이 우연하게 친구의 소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체 속에서의 교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필요성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표 다-4>에 나타난 것처럼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41.3%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에 대한 이해가 24.6%였다. 또한 앞으로 결혼대상자로서 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도 17.7%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표 다-4> 만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성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25 (6.1)	168 (41.3)	100 (24.6)	72 (17.7)	42 (10.3)						407 (100)	
대 학	인 문 대 학	2 (3.5)	26 (45.6)	13 (22.8)	7 (12.3)	9 (15.8)						57 (14.0)	$\chi^2=10.29$ N.S.
	사 회 과 학 대 학	6 (6.5)	40 (43.0)	27 (29.0)	11 (11.8)	9 (9.7)						93 (22.9)	
	사 범 대 학	5 (6.0)	35 (41.7)	18 (21.4)	17 (20.2)	9 (10.7)						84 (20.6)	
	농 과 대 학	4 (7.4)	21 (38.9)	13 (24.1)	11 (20.4)	5 (9.3)						54 (13.3)	
	해 양 과 학 대 학	3 (7.3)	16 (39.0)	10 (24.4)	10 (24.4)	2 (4.9)						41 (10.1)	
	이 공 대 학	5 (6.4)	30 (38.5)	19 (24.4)	16 (20.5)	8 (10.3)						78 (19.2)	
성 별	남	20 (7.3)	101 (37.0)	70 (25.6)	60 (22.0)	22 (8.1)						273 (67.1)	$\chi^2=18.68$ $P < 0.01$
	여	5 (3.7)	67 (50.0)	30 (22.4)	12 (9.0)	20 (14.9)						134 (32.9)	

* 1. 대학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2.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무응답자 제외 (639)
 3. 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4. 결혼대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5. 기타

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대답에 인문대학(45.6%)이 제일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반면 이공대학(38.5%)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성에 대한 이해라는 대답에 사회과학대학(29.0%)이 제일 높고, 사범대학(21.4%)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결혼과 결부한 학생은 해양과학대학(24.4%)이 제일 높고 사회과학대학(11.8%)이 제일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여학생(50.0%)이 남학생(37.0%)보다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제를 원하고 있는 반면 결혼대상을 선택하기 위한 교제에서는 남학생(22.0%)이 여학생(9.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로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중학교부터 남·여 학생을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격리된 교육으로 인한 이성에 대한 이해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교제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볼 때 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필요한 지도·조언 문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교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지도 조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표 다-5>와 같다. 전체학생의 36.4%가 원만한 교제방법에 대한 지도조언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제일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대화의 요령 (15.1%), 이성심리 (14.4%), 교제의 한계점 (13.4%), 부모님의 설득방법 (8.1%), 기타 (4.8%), 성문제 (4.3%), 에티켓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다-5> 만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남·여 교제에 대한 지도 조언을 받고 싶은 문제는?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N (%)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60 (14.4)	34 (8.1)	152 (36.4)	63 (15.1)	56 (13.4)	15 (3.6)	18 (4.3)	20 (4.8)			418 (100)	
대 학 별	인문대학	9 (15.8)	2 (3.5)	18 (31.6)	9 (15.8)	14 (24.6)	1 (1.8)	2 (3.5)	2 (3.5)			57 (13.6)	$\chi^2=46.92$ N.S.
	사회과학대학	18 (19.6)	9 (9.8)	32 (34.8)	12 (13.0)	12 (13.0)	0 (0.0)	3 (3.3)	6 (6.5)			92 (22.0)	
	사범대학	11 (12.8)	10 (11.6)	38 (44.2)	7 (8.1)	11 (12.8)	4 (4.7)	0 (0.0)	5 (5.8)			86 (20.6)	
	농과대학	8 (14.0)	4 (7.0)	19 (33.3)	10 (17.5)	7 (12.3)	3 (5.3)	3 (5.3)	3 (5.3)			57 (13.6)	
	해양과학대학	7 (15.9)	4 (9.1)	10 (22.7)	8 (18.2)	6 (13.6)	4 (9.1)	5 (11.4)	0 (0.0)			44 (10.5)	
성 별	이공대학	7 (8.5)	5 (6.1)	35 (42.7)	17 (20.7)	6 (7.3)	3 (3.7)	5 (6.1)	4 (4.9)			82 (19.6)	
성 별	남	43 (15.1)	24 (8.5)	90 (31.7)	48 (16.9)	40 (14.1)	11 (3.9)	16 (5.6)	12 (4.2)			284 (67.9)	$\chi^2=12.50$ N.S.
	여	17 (12.7)	10 (7.5)	62 (46.3)	15 (11.2)	16 (11.9)	4 (3.0)	2 (1.5)	8 (6.0)			134 (32.1)	

* 1. 이성심리 2. 부모님의 설득방법 무응답자 제외 (628)
 3. 원만한 교제방법 4. 대화의 요령
 5. 교제의 한계점 6. 에티켓
 7. 성문제 8. 기타

대학별로 보면 원만한 교제방법의 경우 사범대학(44.2%)이 제일 높고, 해양과학대학(22.7%)이 제일 낮은 반응을 나타냈다. 대화의 요령에 대한 지도조언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이공대학(20.7%)이 제일 높게 반응을 보였고, 이성심리에 대한 지도조언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사회과학대학(19.6%), 교제 한계점의 경우는 인문대학(24.6%)이 제일 높게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46.3%)이 남학생(31.7%)보다 원만한 교제방법에 대한 지도조언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많았고, 성문제에 관한 경우는 남학생(5.6%)이 여학생(1.5%)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6)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

<표 다-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애와 결혼이 결부되어야 한다(47.0%)는 별개문제(44.0%)라는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다 - 6 > 연애와 결혼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반응항목	인원										Total	χ^2 -test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438 (44.0)	468 (47.0)	90 (9.0)								996 (100)	
대 학	인 문 대 학	64 (39.3)	89 (54.6)	10 (6.1)								163 (16.4)	$\chi^2=33.32$ $P<0.01$
	대 사회과학대학	100 (42.7)	100 (42.7)	34 (14.5)								234 (23.5)	
	사 범 대 학	70 (35.7)	108 (55.1)	18 (9.2)								196 (19.7)	
	농 과 대 학	71 (52.2)	56 (41.2)	9 (6.6)								136 (13.7)	
	별 해양과학대학	44 (51.8)	30 (35.3)	11 (12.9)								85 (8.5)	
	이 공 대 학	89 (48.9)	85 (46.7)	8 (4.4)								182 (18.3)	
성 별	남	284 (46.4)	268 (43.8)	60 (9.8)								612 (61.4)	$df=1$ $\chi^2=6.62$
	여	154 (40.1)	200 (52.1)	30 (7.8)								384 (38.6)	$P<0.05$

* 1. 별개문제다. 2. 결부되어야 한다. 무응답자 제외(50)
3. 기타

대학별로는 사범대학(55.1%)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인문대학(54.6%), 이공대학(46.7%), 사회과학대학(42.7%), 농과대학(41.2%), 해양과학대학(35.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 (52.1%)이 남학생 (43.8%)보다 결혼과 연애는 결부되어야 한다는 대답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4. 여가선용 문제

학생들이 학과시간 이외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여가선용과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하였다.

(1) 여가활동

<표 라-1>에서 보면 전체학생의 24.0%가 친구와의 교제로 여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취미생활 선용은 21.0%, 그 다음으로 교양서적 탐독(19.6%), 씨클활동(11.3%), 가사조력(9.3%), 학과공부(6.7%), 기타(4.8%), 부직활동(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라-1> 학생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67 (6.7)	195 (19.6)	93 (9.3)	239 (24.0)	209 (21.0)	113 (11.3)	33 (3.3)	48 (4.8)				997 (100)	
대학	인문대학	15 (9.1)	42 (25.6)	14 (8.5)	33 (20.1)	26 (15.9)	22 (13.4)	4 (2.4)	8 (4.9)			164 (16.4)	$df=35$ $\chi^2=44.57$ N.S.
	사회과학대학	10 (4.4)	42 (18.3)	22 (9.6)	52 (22.7)	55 (24.0)	30 (13.1)	5 (2.2)	13 (5.7)			229 (23.0)	
	사범대학	13 (6.9)	39 (20.6)	16 (8.5)	48 (25.4)	31 (16.4)	22 (11.6)	8 (4.2)	12 (6.3)			189 (19.0)	
	농과대학	9 (6.7)	21 (15.7)	19 (14.2)	40 (29.9)	30 (22.4)	8 (6.0)	3 (2.2)	4 (3.0)			134 (13.4)	
	해양과학대학	7 (7.7)	11 (12.1)	7 (7.7)	27 (29.7)	21 (23.1)	6 (6.6)	7 (7.7)	5 (5.5)			91 (9.1)	
	이공대학	13 (6.8)	40 (21.1)	15 (7.9)	39 (20.5)	46 (24.2)	25 (13.2)	6 (3.2)	6 (3.2)			190 (19.1)	
성별	남	48 (7.8)	100 (16.2)	49 (7.9)	152 (24.6)	149 (24.1)	64 (10.4)	25 (4.0)	31 (5.0)			618 (62.0)	$df=7$ $\chi^2=27.65$ $P < 0.01$
	여	19 (5.0)	95 (25.1)	44 (11.6)	87 (23.0)	60 (15.8)	49 (12.9)	8 (2.1)	17 (4.5)			379 (38.0)	

- * 1. 학과공부를 한다. 2. 교양서적을 본다.
 3. 가사에 조력한다. 4. 친구들과 교제한다.
 5. 취미생활을 하며 선용한다. 6. 씨클활동에 참여한다.
 7. 부직활동에 종사한다. 8. 기타

무응답자 제외 (49)

대학별로 보면 여가를 친구와의 교제로 보낸다는 경우가 농과대학이 제일 높은 29.9% 반응을 보였고, 인문대학이 제일 낮은 20.1% 반응을 보였다. 취미생활로 여가선용을 한다는 학생의 경우는 이공대학이 제일 높은 24.2% 반응을 보이고, 교양서적 탐독은 인문대학이 25.6%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 볼 때는 친구와의 교제로 여가선용을 한다는 경우가 남녀 학생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취미생활은 남학생이, 교양서적 탐독은 여학생이 높게 반응을 보였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남학생은 활동적인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정서적인 여가활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학생이 친구교제 및 취미생활로 여가선용을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5. 씨클활동 문제

씨클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불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씨클 운영에 있어서 활동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의 씨클인지, 학업과 씨클에 있어서 자신은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등의 6개 항목을 설문하였다.

이 설문은 대학생활에 있어서 자칫하면 씨클활동으로 인하여 소홀히 할 수 있는 학업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씨클의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학생과의 상담 및 씨클 지도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참여 여부

<표 마-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씨클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45.2%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대학별로는 농과대학의 과반수(52.3%) 학생이 현재 씨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사범대학(46.1%), 인문대학(45.2%), 해양과학대학(44.3%), 사회과학대학(43.4%), 이공대학(41.7%) 순이다.

성별로는 여학생(47.3%)이 남학생(43.9%)보다 현재 씨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 많은 학생이 학업 이외에 씨클활동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바람직한 씨클의 선택과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 표 마-1 > 학생은 현재 써클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442 (45.2)	536 (54.8)									978 (100)	
대 학 별	인문대학	71 (45.2)	86 (54.8)									157 (16.1)	$df=5$
	사회과학대학	99 (43.4)	129 (56.6)									228 (23.3)	
	사범대학	89 (46.1)	104 (53.9)									193 (19.7)	$\chi^2=3.96$
	농과대학	69 (52.3)	63 (47.7)									132 (13.5)	N.S.
	해양과학대학	39 (44.3)	49 (55.7)									88 (9.0)	
	이공대학	75 (41.7)	105 (58.3)									180 (18.4)	
성 별	남	266 (43.9)	340 (56.1)									606 (62.0)	$df=1$
	여	176 (47.3)	196 (52.7)									372 (38.0)	$\chi^2=0.95$ N.S.

* 1. 참여하고 있다. 2. 참여하고 있지 않다. 무응답자 제외 (68)

(2) 도움이 되는 점

현재 써클활동을 하고 있다는 학생에게 써클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 표 마-2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써클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38.6%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을 했으며 인격적 교양증대는 13.3%, 폭넓은 사회경험 10.5%, 전전한 이성교제 9.8%,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는 반응은 9.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해양과학대학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인문대학은 인격적 교양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제일 높았으며, 적극적인 자세는 이공대학이 제일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성별로 볼 때는 써클활동을 통해서 지도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은 남학생(7.4%)이 여학생(2.9%)보다 높은 반응인 반면에 사회경험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에서 여학생(13.4%)이 남학생(8.6%)보다 높게 반응하였다.

〈표 마-2〉 만일 참여하고 있다면, 씨클활동을 통해 도움이 되는 면은?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65 (38.6)	42 (9.8)	57 (13.3)	24 (5.6)	45 (10.5)	20 (4.7)	16 (3.7)	6 (1.4)	39 (9.1)	14 (3.3)	428 (100)	
대학별	인문대학	23 (34.3)	9 (13.4)	12 (17.9)	3 (4.5)	11 (16.4)	1 (1.5)	0 (0.0)	0 (0.0)	6 (9.0)	2 (3.0)	67 (15.7)	$\chi^2=55.41$ $P < 0.05$
	사회과학대학	41 (40.6)	14 (13.9)	8 (7.9)	7 (6.9)	5 (5.0)	3 (3.0)	3 (3.0)	3 (3.0)	10 (9.9)	7 (6.9)	101 (23.6)	
	사범대학	35 (40.2)	8 (9.2)	11 (12.6)	5 (5.7)	12 (13.8)	5 (5.7)	2 (2.3)	1 (1.1)	5 (5.7)	3 (3.4)	87 (20.3)	
	농과대학	23 (37.1)	2 (3.2)	8 (12.9)	6 (9.7)	6 (9.7)	6 (9.7)	3 (4.8)	1 (1.6)	7 (11.3)	0 (0.0)	62 (14.5)	
	해양과학대학	17 (47.2)	3 (8.3)	5 (13.9)	1 (2.8)	1 (2.8)	3 (8.3)	4 (11.1)	0 (0.0)	1 (2.8)	1 (2.8)	36 (8.4)	
	이공대학	26 (34.7)	6 (8.0)	13 (17.3)	2 (2.7)	10 (13.3)	2 (2.7)	4 (5.3)	1 (1.3)	10 (13.3)	1 (1.3)	75 (17.5)	
성별	남	96 (37.5)	23 (9.0)	38 (14.8)	19 (7.4)	22 (8.6)	11 (4.3)	12 (4.7)	4 (1.6)	23 (9.0)	8 (3.1)	256 (59.8)	$df=9$ $\chi^2=9.61$ N.S.
	여	69 (40.1)	19 (11.0)	19 (11.0)	5 (2.9)	23 (13.4)	9 (5.2)	4 (2.3)	2 (1.2)	16 (9.3)	6 (3.5)	172 (40.2)	

무응답자 제외 (618)

- * 1. 원만한 대인관계
- 2. 건전한 이성교제
- 3. 인격적 교양증대
- 4. 지도성 함양
- 5. 폭넓은 사회경험
- 6. 봉사정신
- 7. 여가선용
- 8. 협동정신
- 9. 모든 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 10. 선·후배, 교수와의 친목

(3) 씨클활동의 불만점

만일 자신의 씨클활동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표 마-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이 인화단결이 되지않아 불만이라는 반응이 25.5%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점이 없다(21.5%), 임원들의 리더쉽이 부족하다(18.7%), 지도교수의 무성의가 불만이다(14.6%), 본래의 씨클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8.1%), 기타(6.3%), 구성원이 좋지 않다(5.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사회과학대학의 경우는 구성원간의 인화단결이 되지 않아 불만이라는 경우가 32.1%로 제일 높게 반응했고, 사범대학의 경우는 활동에 있어 새로운 점이 없어서 불만이라는 반응이 25.0%이며, 지도교수의 무성의가 불만이라는 반응은 농과대학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 표 마-3 > 만일 참여하고 있다면, 써클활동에 불만이 있는 점은?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 ² - test
구분	인원	N(%)	N(%)	N(%)	N(%)	N(%)	N(%)	N(%)	N(%)	N(%)	N(%)	N(%)	
전체		58 (14.6)	21 (5.3)	74 (18.7)	101 (25.5)	32 (8.1)	85 (21.5)	25 (6.3)				396 (100)	
대 학	인문대학	13 (19.4)	2 (3.0)	10 (14.9)	17 (25.4)	5 (7.5)	14 (20.9)	6 (9.0)				67 (16.9)	
	사회과학대학	6 (7.1)	6 (7.1)	16 (19.0)	27 (32.1)	3 (3.6)	20 (23.8)	6 (7.1)				84 (21.2)	df=30
	사범대학	9 (11.8)	1 (1.3)	18 (23.7)	15 (19.7)	11 (14.5)	19 (25.0)	3 (3.9)				76 (19.2)	χ ² =32.76
	농과대학	16 (24.2)	6 (9.1)	7 (10.6)	18 (27.3)	3 (4.5)	12 (18.2)	4 (6.1)				66 (16.7)	N.S.
	해양과학대학	4 (11.8)	3 (8.8)	8 (23.5)	8 (23.5)	3 (8.8)	6 (17.6)	2 (5.9)				34 (8.6)	
	이공대학	10 (14.5)	3 (4.3)	15 (21.7)	16 (23.2)	7 (10.1)	14 (20.3)	4 (5.8)				69 (17.4)	
성 별	남	39 (16.3)	16 (6.7)	41 (17.2)	62 (25.9)	21 (8.8)	47 (19.7)	13 (5.4)				239 (60.4)	df=6 χ ² =6.16
	여	19 (12.1)	5 (3.2)	33 (21.0)	39 (24.8)	11 (7.0)	38 (24.2)	12 (7.6)				157 (39.6)	N.S.

무응답자 제외 (650)

- * 1. 지도교수의 성의가 없다. 2. 구성원들의 질이 좋지 않다.
- 3. 임원들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4. 구성원들의 인화단결이 되지 않는다.
- 5. 본래의 써클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6. 활동내용에 새로운 점이 없다.
- 7. 기타

성별로 볼 때는 남·여 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써클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임원들의 자질과 지도교수의 무성의함에 불만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4) 활동과정 중의 결정자

써클활동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는 질문에 < 표 마-4 >와 같은 반응이 나왔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31.8%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했고, 그외에 선배가 하는 경우 (29.7%), 써클간부가 하는 경우 (24.5%), 실력자 (9.2%), 지도교수 (2.8%), 기타 (1.9%) 등의 순으로 반응했다.

대학별로는 해양과학대학의 46.2%가 전체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반응이 제일 높게 나왔고, 농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우는 선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가 31.3%로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남녀학생간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써클간부가 결정한다는 항목에서

일 높고 그다음 농과대학(39.8%), 사회과학대학(37.2%) 순으로 반응했고, 교양증진을 위한 것에 대한 응답은 인문대학이 41.1%로 제일 높고, 사범대학이 36.0%, 이공대학이 34.1%, 사회과학대학이 33.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마-5 > 대학생의 써클활동은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N(%)	N(%)	N(%)	N(%)	N(%)	N(%)	N(%)	N(%)		
전 체		127 (13.0)	331 (33.9)	357 (36.6)	94 (9.6)	67 (6.9)						976 (100)	
대 학	인 문 대 학	22 (13.9)	65 (41.1)	48 (30.4)	15 (9.5)	8 (5.1)						158 (16.2)	$\chi^2=28.78$ N.S.
	사 회 과 학 대 학	26 (11.5)	75 (33.2)	84 (37.2)	21 (9.3)	20 (8.8)						226 (23.2)	
	사 범 대 학	31 (16.4)	68 (36.0)	69 (36.5)	7 (3.7)	14 (7.4)						189 (19.4)	
	농 과 대 학	17 (12.8)	35 (26.3)	53 (39.8)	18 (13.5)	10 (7.5)						133 (13.6)	
	해 양 과 학 대 학	6 (6.8)	26 (29.5)	39 (44.3)	13 (14.8)	4 (4.5)						88 (9.0)	
	이 공 대 학	25 (13.7)	62 (34.1)	64 (35.2)	20 (11.0)	11 (6.0)						182 (18.6)	
성 별	남	78 (12.9)	179 (29.7)	241 (40.0)	61 (10.1)	44 (7.3)						603 (61.8)	$\chi^2=14.01$ $P < 0.01$
	여	49 (13.1)	152 (40.8)	116 (31.1)	33 (8.8)	23 (6.2)						373 (38.2)	

무응답자 제외 (70)

- * 1. 학술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2. 교양을 높이는 것
 3. 사회봉사와 개선을 위한 것 4. 여가선용과 오락적인 것
 5. 기타

성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봉사와 개선을 위한 것은 남학생(40.0%)이 여학생(31.1%)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한편 교양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여학생(40.8%)이 남학생(29.7%)보다 대체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 설문지의 결과로 볼 때 써클활동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이 여가선용이나 오락보다 사회에 대한 봉사나 교양을 쌓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극소수 학생만이 학술적·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써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써클과 학업활동간의 비중

써클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업과 써클활동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표 마-6 >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의 32.7%가 학업과 써클활동에 대해 똑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설문을 통하여 학생생활연구소가 앞으로 추진하는 특강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함은 물론 학생들의 필요영역을 좀더 이해하고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강화되어야 할 기능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생생활연구소의 기능중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표 바-1>처럼 취업보도에 관한 정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34.0%로 제일 높게 반응했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생활 조사분석(16.6%), 부직알선(15.7%), 교양특강 실시(12.9%) 순이며, 그 외에 개인 및 집단상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유학안내, 심리검사 등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표 바-1>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더 강화하여야 할 기능을 세 가지 고른다면?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N (%)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9 (5.2)	93 (16.6)	190 (34.0)	53 (9.5)	72 (12.9)	88 (15.7)	10 (1.8)	13 (2.3)	11 (2.0)		559 (100)	
대학	인문대학	1 (1.2)	14 (16.3)	25 (29.1)	8 (9.3)	16 (18.6)	14 (16.3)	1 (1.2)	5 (5.8)	2 (2.3)		86 (15.4)	$\chi^2=58.16$ $P < 0.05$
	사회과학대학	5 (3.5)	26 (18.1)	57 (39.6)	13 (9.0)	15 (10.4)	22 (15.3)	1 (0.7)	2 (1.4)	3 (2.1)		144 (25.8)	
	사범대학	8 (8.0)	10 (10.0)	29 (29.0)	10 (10.0)	22 (22.0)	13 (13.0)	4 (4.0)	2 (2.0)	2 (2.0)		100 (17.9)	
	농과대학	8 (11.0)	12 (16.4)	23 (31.5)	9 (12.3)	2 (2.7)	13 (17.8)	2 (2.7)	1 (1.4)	3 (4.1)		73 (13.1)	
	해양과학대학	4 (8.2)	11 (22.4)	13 (26.5)	7 (14.3)	3 (6.1)	10 (20.4)	0 (0.0)	0 (0.0)	1 (2.0)		49 (8.8)	
	이공대학	3 (2.8)	20 (18.7)	43 (40.2)	6 (5.6)	14 (13.1)	16 (15.0)	2 (1.9)	3 (2.8)	0 (0.0)		107 (19.1)	
성별	남	21 (5.8)	73 (20.0)	124 (34.0)	36 (9.9)	39 (10.7)	49 (13.4)	4 (1.1)	10 (2.7)	9 (2.5)		365 (65.3)	$\chi^2=20.41$ $P < 0.01$
	여	8 (4.1)	20 (10.3)	66 (34.0)	17 (8.8)	33 (17.0)	39 (20.1)	6 (3.1)	3 (1.5)	2 (1.0)		194 (34.7)	

무응답자 제외 (487)

- *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 각종 학생생활 조사 분석
- 3. 취업보도
- 4. 개인 및 집단 상담
- 5. 교양 특강 실시
- 6. 부직알선
- 7. 각종 심리검사 실시
- 8. 유학안내
- 9. 기타

대학별로는 이공대학의 경우 취업보도 항목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2%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고, 학생생활연구소 조사 분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해양과학대학이 22.4%로 높게 반응을 보였다. 교양에 관한 특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범대학이 22.0% 반응이 나왔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는 학생생활 조사에 대한 분석강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교양 특강 실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설문의 결과를 볼 때, 대다수 학생이 졸업 후 진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반면 심리 및 상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양특강과 취업특강의 비중

본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특강과 취업특강 중에 학생들은 어느 특강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표 바-2>에 나타난 것처럼 절반에 가까운 45.5% 학생들이 두 특강이 전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바-2>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특강에는 교양특강과 취업정보 특강이 있다. 어느 특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x ² -test
구분	인원	N(%)	N(%)	N(%)	N(%)	N(%)	N(%)	N(%)	N(%)	N(%)	N(%)	N(%)	
전 체		180 (17.6)	354 (34.7)	465 (45.5)	22 (2.2)							1,021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35 (21.6)	42 (25.9)	82 (50.6)	3 (1.9)							162 (15.9)	df=15
	사 회 과 학 대 학	47 (19.9)	96 (40.7)	89 (37.7)	4 (1.7)							236 (23.1)	
	사 범 대 학	46 (22.3)	47 (22.8)	110 (53.4)	3 (1.5)							206 (20.2)	x ² =45.95
	농 과 대 학	21 (15.2)	53 (38.4)	62 (44.9)	2 (1.4)							138 (13.5)	P<0.01
	해 양 과 학 대 학	11 (12.0)	41 (44.6)	39 (42.4)	1 (1.1)							92 (9.0)	
	이 공 대 학	20 (10.7)	75 (40.1)	83 (44.4)	9 (4.8)							187 (18.3)	
성 별	남	98 (15.6)	252 (40.2)	261 (41.6)	16 (2.6)							627 (61.4)	df=3
	여	82 (20.8)	102 (25.9)	204 (51.8)	6 (1.5)							394 (38.6)	x ² =24.62 P<0.01

* 1. 교양특강 2. 취업정보 특강 3. 둘 모두 4. 기타 무응답자 제외 (25)

대학별로는 사범대학의 경우 두 특강 전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제일 높은 53.4%의 반응을 보였고, 해양과학대학의 경우는 취업특강 정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44.6%의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40.2%)이 여학생(25.9%)보다 취업특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교양특강 강화가 필요하다가 남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대다수 학생이 모든 특강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교양 특강보다 취업 특강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가 미비하고 취업하는 데 있어 대규모 기업체가 없다는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타도에 비해 취업정보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 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른 진로교육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교양특강 횟수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특강의 횟수는 <표 바-3>에 나타난 것처럼 한 학기에 두 번 정도가

<표 바-3> 만일 교양특강을 실시한다면 몇 번?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235 (23.2)	595 (58.8)	57 (5.6)	64 (6.3)	61 (6.0)						1,012 (100)	
대 학	인 문 대 학	48 (29.4)	95 (58.3)	5 (3.1)	8 (4.9)	7 (4.3)						163 (16.1)	$df=20$
	사 회 과 학 대 학	41 (17.4)	138 (58.5)	21 (8.9)	13 (5.5)	23 (9.7)						236 (23.3)	
	사 범 대 학	47 (22.9)	132 (64.4)	6 (2.9)	11 (5.4)	9 (4.4)						205 (20.3)	$\chi^2=0.20$ N.S.
	농 과 대 학	24 (17.8)	82 (60.7)	10 (7.4)	8 (5.9)	11 (8.1)						135 (13.3)	
	해 양 과 학 대 학	18 (20.2)	55 (61.8)	5 (5.6)	9 (10.1)	2 (2.2)						89 (8.8)	
	이 공 대 학	57 (31.0)	93 (50.5)	10 (5.4)	15 (8.2)	9 (4.9)						184 (18.2)	
성 별	남	133 (21.6)	347 (56.2)	43 (7.0)	49 (7.9)	45 (7.3)						617 (61.0)	$df=4$ $\chi^2=19.40$ $P<0.01$
	여	102 (25.8)	248 (62.8)	14 (3.5)	15 (3.8)	16 (4.1)						395 (39.0)	

* 1. 한 학기에 한번 2. 한 학기에 두번
3. 일년에 한번 4. 일년에 세번
5. 기타

무응답자 제외 (34)

좋다는 반응이 58.8%로 나왔다.

대학별로 보면 한 학기에 두 번이 좋다는 반응에 사범대학이 64.4%로 제일 높게 반응하였고,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대학(61.8%), 농과대학(60.7%), 사회과학대학(58.5%), 인문대학(58.3%), 이공대학(5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62.8%)이 남학생(56.2%)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4) 취업특강 횟수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특강의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표 바-4>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별로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생이 56.2%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바-4> 또 만일 취업정보 특강을 한다면 몇 번?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구분	인원												
전	체	243 (24.0)	569 (56.2)	59 (5.8)	93 (9.2)	48 (4.7)						1,012 (100)	
대	인문대학	46 (28.0)	89 (54.3)	8 (4.9)	15 (9.1)	6 (3.7)						164 (16.2)	$df=20$ $\chi^2=38.11$ $P<0.01$
	사회과학대학	51 (21.9)	135 (57.9)	11 (4.7)	17 (7.3)	19 (8.2)						233 (23.0)	
	사범대학	58 (28.6)	117 (57.6)	11 (5.4)	9 (4.4)	8 (3.9)						203 (20.1)	
	농과대학	27 (19.7)	70 (51.1)	14 (10.2)	16 (11.7)	10 (7.3)						137 (13.5)	
	해양과학대학	15 (17.0)	54 (61.4)	5 (5.7)	13 (14.8)	1 (1.1)						88 (8.7)	
	이공대학	46 (24.6)	104 (55.6)	10 (5.3)	23 (12.3)	4 (2.1)						187 (18.5)	
성	남	136 (21.9)	335 (53.9)	44 (7.1)	67 (10.8)	39 (6.3)						621 (61.4)	$df=4$ $\chi^2=21.30$ $P<0.01$
별	여	107 (27.4)	234 (59.8)	15 (3.8)	26 (6.6)	9 (2.3)						391 (38.6)	

* 1. 한 학기에 한번 2. 한 학기에 두번 3. 일년에 한번 4. 일년에 세번 5. 기타 무응답자 제외 (34)

대학별로는 해양과학대학의 경우가 한 학기에 두 번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61.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인문대학의 경우는 54.3%로 제일 낮은 반응을 보였지만 반응률은 50%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남녀별로 보면 한 학기에 두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반응하였고, 한 학기에 한번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5) 특강에 있어서 남·여 구분의 필요성

교양특강과 취업특강을 실시하는 데 있어 남·여 구분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표 바-5>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학생의 69.0%라는 대다수 학생이 특강을 따로 구분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바-5> 이런 두 가지 특강을 남·여별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반응항목		구분										Total	χ^2 -test	
		인원	1	2	3	4	5	6	7	8	9			10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702 (69.0)	316 (31.0)										1,018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111 (68.9)	50 (31.1)										161 (15.8)	$\chi^2=7.66$ N.S.
	사 회 과 학 대 학	154 (65.0)	83 (35.0)										237 (23.3)	
	사 범 대 학	140 (69.0)	63 (31.0)										203 (19.9)	
	농 과 대 학	102 (75.0)	34 (25.0)										136 (13.4)	
	해 양 과 학 대 학	70 (76.9)	21 (23.1)										91 (8.9)	
	이 공 대 학	125 (65.8)	65 (34.2)										190 (18.7)	
성 별	남	442 (70.6)	184 (29.4)										626 (61.5)	$df=1$ $\chi^2=1.87$
	여	260 (66.3)	132 (33.7)										392 (38.5)	N.S.

- * 1. 남·여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 2. 남·여별 따로 할 필요가 있다.

무응답자 제외 (28)

대학별로 보면 해양과학대학의 경우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반응에 76.9%, 농과대학이 75.0%, 사범대학 69.0%, 인문대학 68.9%, 이공대학 65.8%, 사회과학대학 65.0% 순으로 나왔다.

성별로는 남학생 (70.6%)이 여학생 (66.3%)보다 높게 반응하였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남·여를 구분하여 특강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다.

7. 부직문제

현재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매학기 실시하는 부직알선 사업에 대해 학생이 부직을 갖고 있는지 여부, 희망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2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1) 부직 여부

<표 사-1>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부직을 갖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7.4%이다. 부직을 갖고 싶으면서도 갖고 있지 못한 학생은 74.9%나 되었다.

<표 사-1> 학생은 현재 부직을 갖고 있습니까?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129 (12.7)	763 (74.9)	127 (12.5)								1,019 (100)	
대 학 별	인문대학	12 (7.5)	132 (82.0)	17 (10.6)								161 (15.8)	$\chi^2=31.17$ $P<0.01$
	사회과학대학	27 (11.4)	162 (68.4)	48 (20.3)								237 (23.3)	
	사범대학	38 (18.7)	149 (73.4)	16 (7.9)								203 (19.9)	
	농과대학	13 (9.5)	107 (78.1)	17 (12.4)								137 (13.4)	
	해양과학대학	15 (16.3)	69 (75.0)	8 (8.7)								92 (9.0)	
	이공대학	24 (12.7)	144 (76.2)	21 (11.1)								189 (18.5)	
성 별	남	77 (12.2)	463 (73.5)	90 (14.3)								630 (61.8)	$\chi^2=5.07$ N.S.
	여	52 (13.4)	300 (77.1)	37 (9.5)								389 (38.2)	

- * 1. 갖고 있다. 2. 갖고 있지 않지만 원한다.
3. 필요없다.

무응답자 제외 (27)

대학별로 부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은 대학은 사범대학이 18.7%로 제일 높고, 해양과학대학(16.3%), 이공대학(12.7%), 사회과학대학(11.4%), 농과대학(9.5%), 인문대학(7.5%) 순이다.

성별로는 여학생(13.4%)이 남학생(12.2%)보다 현재 부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는 부직이 필요없다라는 반응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로 볼 때, 대학생 과외 금지로 인하여 부직을 갖고 있는 학생보다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많고, 또한 학생수에 비해 앞선되어지는 부직이 많이 모자란 실정으로 대규모 기업이나 사회의 협소화로 인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한 부직 부족 현상으로 인해 현재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직알선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부직을 희망하는 이유

부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표 사-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험을 얻기 위해서 (31.2%)가 제일 높게 반응을 보였으며, 용돈마련 (23.1%), 학비마련 (17.9%), 자립정신 (17.5%) 순으로 반응하였으며, 직업경험 (5.6%), 기타 (3.1%), 여가선용 (1.7%)은 매우 낮게 반응하였다.

< 표 사 - 2 > 부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구분	인원												
전	체	167 (17.9)	216 (23.1)	291 (31.2)	52 (5.6)	163 (17.5)	16 (1.7)	29 (3.1)				934 (100)	
대 학 별	인문대학	31 (20.1)	36 (23.4)	52 (33.8)	3 (1.9)	25 (16.2)	2 (1.3)	5 (3.2)				154 (16.5)	$\chi^2=34.99$ N.S.
	사회과학대학	38 (18.4)	48 (23.2)	62 (30.0)	10 (4.8)	37 (17.9)	3 (1.4)	9 (4.3)				207 (22.2)	
	사범대학	39 (22.0)	51 (28.8)	45 (25.4)	9 (5.1)	27 (15.3)	2 (1.1)	4 (2.3)				177 (19.0)	
	농과대학	15 (11.8)	21 (16.5)	48 (37.8)	11 (8.7)	25 (19.7)	3 (2.4)	4 (3.1)				127 (13.6)	
	해양과학대학	11 (12.4)	28 (31.5)	24 (27.0)	8 (9.0)	16 (18.0)	1 (1.1)	1 (1.1)				89 (9.5)	
	이공대학	33 (18.3)	32 (17.8)	60 (33.3)	11 (6.1)	33 (18.3)	5 (2.8)	6 (3.3)				180 (19.3)	
성 별	남	106 (18.4)	118 (20.5)	188 (32.6)	38 (6.6)	100 (17.4)	6 (1.0)	20 (3.5)				576 (61.7)	$\chi^2=13.30$ $P < 0.05$
	여	61 (17.0)	98 (27.4)	103 (28.8)	14 (3.9)	63 (17.6)	10 (2.8)	9 (2.5)				358 (38.3)	

무응답자 제외 (112)

- * 1. 학비 마련을 위해서
- 2. 용돈 마련을 위해서
- 3. 사회경험을 얻기 위해서
- 4. 직업경험을 얻기 위해서
- 5. 자립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 6. 여가선용을 위해서
- 7. 기타

반응항목별로 보면, 학비마련은 사범대학 (22.0%), 용돈마련은 해양과학대학 (31.5%), 사회경험은 농과대학 (37.8%), 자립정신은 농과대학 (19.7%)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경험(32.6%), 용돈마련(20.5%)에서 여학생보다 높게 반응했고, 여학생은 학비나 용돈 조달을 위한 항목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설문 결과 학생들의 부직관을 보면 여가선용보다는 대학생으로서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경험 및 직장경험과 학비나 용돈 등 경제적인 이유로 부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가정문제

학생들의 가정생활에서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고, 그 문제의 내용 및 가정에서 당면하는 자신의 문제 등 3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설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가정에서 어떤 압박감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원활하고 바람직한 학생지도를 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1) 가정문제의 유무

학생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표 아-1>에

<표 아-1> 학생은 현재 자기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N (%)	x ² -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540 (55.3)	436 (44.7)									976 (100)	
대 학	인 문 대 학	87 (58.4)	62 (41.6)									149 (15.3)	df=5 x ² =7.05 N.S.
	사 회 과 학 대 학	128 (56.4)	99 (43.6)									227 (23.3)	
	사 범 대 학	96 (49.2)	99 (50.8)									195 (20.0)	
	농 과 대 학	66 (50.8)	64 (49.2)									130 (13.3)	
	해 양 과 학 대 학	57 (62.6)	34 (37.4)									91 (9.3)	
	이 공 대 학	106 (57.6)	78 (42.4)									184 (18.9)	
성 별	남	320 (52.5)	290 (47.5)									610 (62.5)	df=1 x ² =5.11 P<0.05
	여	220 (60.1)	146 (39.9)									366 (37.5)	

- * 1. 가정문제가 없다.
- 2. 가정문제가 있다.

무응답자 제외(70)

나타난 것과 같이 가정에 문제가 없다(55.3%)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44.7%)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학별로는 사범대학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50.8%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농과대학(49.2%), 사회과학대학(43.6%), 이공대학(42.4%), 인문대학(41.6%), 해양과학대학(37.4%) 순이다.

성별로는 남학생(47.5%)이 여학생(39.9%)보다 가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응이 높다.

(2) 문제내용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표 아-2>에 나타난 것처럼 56.2%가 경제적인 문제였다. 이 반응은 <표 사-2>에서 학생들이 부직을 선택하는 이유에 경제적인 이유로 부직을 희망한다는 반응과 일치하는 것이다. 가족원들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23.0%나 되었고, 가족원의 건강으로 인한 경우도 12.7%로 나타났다.

<표 아-2> 만일 가정(부모)에 문제가 있다면 주로 그 문제의 내용은?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N(%)	N(%)	N(%)	N(%)	N(%)	N(%)	N(%)	N(%)	N(%)		
전	체	235 (56.2)	53 (12.7)	96 (23.0)	34 (8.1)							418 (100)		
대 학	인문대학	38 (59.4)	8 (12.5)	14 (21.9)	4 (6.3)							64 (15.3)	$df=15$	
	사회과학대학	51 (54.3)	15 (16.0)	19 (20.2)	9 (9.6)							94 (22.5)		
	사범대학	58 (60.4)	15 (15.6)	17 (17.7)	6 (6.3)							96 (23.0)	$\chi^2=13.64$	
	농과대학	30 (49.2)	5 (8.2)	19 (31.1)	7 (11.5)							61 (14.6)		N.S.
	해양과학대학	21 (70.0)	1 (3.3)	7 (23.3)	1 (3.3)							30 (7.2)		
이공대학	37 (50.7)	9 (12.3)	20 (27.4)	7 (9.6)							73 (17.5)			
성 별	남	159 (57.8)	27 (9.8)	67 (24.4)	22 (8.0)							275 (65.8)	$df=3$ $\chi^2=6.26$	
	여	76 (53.1)	26 (18.2)	29 (20.3)	12 (8.4)							143 (34.2)		N.S.

* 1. 경제문제
3. 가족원 불화

2. 가족건강
4. 기타

무응답자 제외(628)

대학별로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양과학대학이 70.0%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사범대학(60.4%), 인문대학(59.4%), 사회과학대학(54.3%), 이공대학(50.7%), 농과대학(49.2%)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학생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경제문제(57.8%)와 가족원의 불화(24.4%)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가족건강(18.2%)에서 비교적 높게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직 알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3) 가정에서 당면하는 자신의 문제

현재 자신의 가정에서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이냐는 질문에 <표 아-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족들의 자신에 대한 큰 기대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49.8%로 절반 정도이다. 여러가지 간섭과 통제가 심하다(17.1%), 용돈이 적다(10.9%), 기타

<표 아-3> 현재 가정에서 학생에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x ² -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206 (49.8)	71 (17.1)	45 (10.9)	26 (6.3)	28 (6.8)	38 (9.2)					414 (100)	
대 학 별	인문대학	21 (33.9)	15 (24.2)	7 (11.3)	4 (6.5)	5 (8.1)	10 (16.1)					62 (15.0)	df=25 x ² =28.10 N.S.
	사회과학대학	46 (49.5)	15 (16.1)	14 (15.1)	3 (3.2)	5 (5.4)	10 (10.8)					93 (22.5)	
	사범대학	52 (57.8)	13 (14.4)	8 (8.9)	5 (5.6)	4 (4.4)	8 (8.9)					90 (21.7)	
	농과대학	33 (51.6)	11 (17.2)	6 (9.4)	9 (14.1)	4 (6.3)	1 (1.6)					64 (15.5)	
	해양과학대학	15 (46.9)	7 (21.9)	3 (9.4)	1 (3.1)	3 (9.4)	3 (9.4)					32 (7.7)	
이공대학	39 (53.4)	10 (13.7)	7 (9.6)	4 (5.5)	7 (9.6)	6 (8.2)					73 (17.6)		
성 별	남	147 (53.3)	39 (14.1)	32 (11.6)	17 (6.2)	17 (6.2)	24 (8.7)					276 (66.7)	df=5 x ² =7.52
	여	59 (42.8)	32 (23.2)	13 (9.4)	9 (6.5)	11 (8.0)	14 (10.1)					138 (33.3)	N.S.

무응답자 제외 (632)

- * 1.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
- 2. 간섭과 통제가 너무 심하다.
- 3. 용돈을 넉넉히 주지 않는다.
- 4. 항상 어린애 취급을 한다.
- 5. 남과 비교하여 무능을 강조한다.
- 6. 기타

(9.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자신에게 거는 지나친 기대감이 문제라는 항목에 사범대학의 경우가 57.8%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고, 심한 간섭과 통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인문대학(24.2%)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용돈 부족의 문제는 사회과학대학이 15.1% 반응을 보여 타 대학보다 높았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학생의 경우는 지나친 기대감이 문제라는 응답이 53.3%로 여학생(42.8%)보다 높게 반응한 반면 심한 간섭과 통제가 문제라는 응답에는 여학생이 23.2%로 남학생(14.1%)보다 높게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감을 부담스러워함은 물론 방황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인으로서 행동에 대한 책임감보다 부모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에 의해 자신의 의견과는 달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좀더 개방적인 대화를 가짐은 물론 적극적인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9. 성격 및 신체건강 문제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신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이 설문을 통하여 학생이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받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신체적 열등감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심리 및 상담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성격문제

학생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자-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별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소한 일로 걱정한다는 경우가 17.9%,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16.9%), 공상이 심하다, 기타, 실수할까봐 걱정된다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39.7%로 인문대학이 가장 큰 반응을 보였고,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농과대학이 21.7%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해양과학대학은 실수할까봐 두렵다가 9.9%, 공상이 심하다 22.0%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항목에서 큰 반응을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자-1〉 학생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x ²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57 (16.2)	174 (17.9)	334 (34.4)	164 (16.9)	63 (6.5)	79 (8.1)					971 (100)	
대학별	인문대학	16 (10.3)	34 (21.8)	62 (39.7)	23 (14.7)	8 (5.1)	13 (8.3)					156 (16.1)	df=25
	사회과학대학	37 (16.4)	40 (17.7)	71 (31.4)	38 (16.8)	15 (6.6)	25 (11.1)					226 (23.3)	
	사범대학	35 (18.6)	37 (19.7)	62 (33.0)	33 (17.6)	8 (4.3)	13 (6.9)					188 (19.4)	x ² =22.99
	농과대학	17 (13.2)	21 (16.3)	44 (34.1)	28 (21.7)	11 (8.5)	8 (6.2)					129 (13.3)	N.S.
	해양과학대학	20 (22.0)	14 (15.4)	29 (31.9)	12 (13.2)	9 (9.9)	7 (7.7)					91 (9.4)	
	이공대학	32 (17.7)	28 (15.5)	66 (36.5)	30 (16.6)	12 (6.6)	13 (7.2)					181 (18.6)	
성별	남	97 (16.1)	101 (16.8)	191 (31.7)	114 (18.9)	48 (8.0)	51 (8.5)					602 (62.0)	df=5 x ² =13.98
	여	60 (16.3)	73 (19.8)	143 (38.8)	50 (13.6)	15 (4.1)	28 (7.6)					369 (38.0)	P < 0.05

무응답자 제외 (75)

- * 1. 공상이 심하다.
- 2. 사소한 일로 걱정한다.
- 3. ನೀ에 對한 자신이 부족하다.
- 4.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 5. 실수할까봐 걱정한다.
- 6. 기타

(2) 신체문제

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對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 자-2〉와 같이 전체적으로 운동부족을 느낀다고 對答한 학생이 24.3%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18.0%), 시력이 약하다 (14.9%), 키가 너무 작다 (13.8%), 몸이 말랐다 (1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해양과학대학에서는 운동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對답이 33.3%로 제일 높고, 인문대학은 머리가 무거울 때가 많다가 25.2%, 사범대학은 시력이 약하다 (18.8%)가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분류하면 남학생의 경우는 운동부족 (27.2%), 몸이 말랐다 (17.9%), 머리가 무겁다 (15.3%) 순으로 반응했고, 여학생의 경우는 시력이 약하다 (22.6%), 머리가 무겁다 (22.3%), 운동부족 (19.5%), 키가 작다 (15.3%) 순으로 나타나 남·여 학생간에는

반응순위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자-2〉 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x ² -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227 (24.3)	168 (18.0)	129 (13.8)	56 (6.0)	124 (13.3)	139 (14.9)	91 (9.7)				934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28 (18.5)	38 (25.2)	26 (17.2)	7 (4.6)	15 (9.9)	24 (15.9)	13 (8.6)				151 (16.2)	df=3 x ² =39.78 P<0.01
	사 회 과 학 대 학	50 (22.7)	35 (15.9)	25 (11.4)	19 (8.6)	31 (14.1)	38 (17.3)	22 (10.0)				220 (23.6)	
	사 범 대 학	48 (27.3)	33 (18.8)	22 (12.5)	10 (5.7)	18 (10.2)	33 (18.8)	12 (6.8)				176 (18.8)	
	농 과 대 학	31 (25.2)	22 (17.9)	19 (15.4)	5 (4.1)	15 (12.2)	16 (13.0)	15 (12.2)				123 (13.2)	
	해 양 과 학 대 학	29 (33.3)	11 (12.6)	13 (14.9)	8 (9.2)	11 (12.6)	8 (9.2)	7 (8.0)				87 (9.3)	
	이 공 대 학	41 (23.2)	29 (16.4)	24 (13.6)	7 (4.0)	34 (19.2)	20 (11.3)	22 (12.4)				177 (19.0)	
성 별	남	158 (27.2)	89 (15.3)	75 (12.9)	32 (5.5)	104 (17.9)	59 (10.2)	63 (10.9)				580 (62.1)	df=6 x ² =62.57 P<0.01
	여	69 (19.5)	79 (22.3)	54 (15.3)	24 (6.8)	20 (5.6)	80 (22.6)	28 (7.9)				354 (37.9)	

무응답자 제외 (112)

- * 1. 운동이 부족하다. 2. 머리가 멍하고 무거울 때가 많다.
- 3. 키가 너무 작다. 4. 현기증을 자주 느낀다.
- 5. 몸이 너무 말랐다. 6. 시력이 약하다.
- 7. 기타

10. 가치관의 문제

대학생의 행동기준과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 인생추구 목표 등 3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이 설문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인생을 설계하고 있으며, 그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의 갈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 등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인격형성과 갈등해소 등의 상담에 활용할 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1) 행동기준

학생 자신은 현재 어떠한 기준에 의해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표 차-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적당히 행동한다가 46.8%로 제일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확고한 가치관에 의해 행동한다는 반응은 31.6%로 적당히 행동한다보다 조금 떨어지는 반응을 보

이고는 있으나 그나마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자신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표 차-1〉 학생은 현재 자기의 행동을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319 (31.6)	473 (46.8)	101 (10.0)	77 (7.6)	40 (4.0)						1,010 (100)	
대학별	인문대학	45 (28.1)	84 (52.5)	13 (8.1)	11 (6.9)	7 (4.4)						160 (15.8)	$df=26$ $\chi^2=13.35$ N.S.
	사회과학대학	82 (35.2)	97 (41.6)	26 (11.2)	17 (7.3)	11 (4.7)						233 (23.1)	
	사범대학	60 (30.5)	97 (49.2)	21 (10.7)	10 (5.1)	9 (4.6)						197 (19.5)	
	농과대학	49 (35.8)	60 (43.8)	11 (8.0)	14 (10.2)	3 (2.2)						137 (13.6)	
	해양과학대학	29 (31.2)	44 (47.3)	10 (10.8)	7 (7.5)	3 (3.2)						93 (9.2)	
	이공대학	54 (28.4)	91 (47.9)	20 (10.5)	18 (9.5)	7 (3.7)						190 (18.8)	
성별	남	222 (35.3)	259 (41.2)	65 (10.3)	55 (8.7)	28 (4.5)						629 (62.3)	$df=4$ $\chi^2=22.60$ $P < 0.01$
	여	97 (25.5)	214 (56.2)	36 (9.4)	22 (5.8)	12 (3.1)						381 (37.7)	

무응답자 제외 (36)

- * 1.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다. 2. 경우에 따라 적당히 행동한다.
- 3. 안일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4. 되는대로 행동한다.
- 5. 기타

대학별로는 인문대학에서는 적당히 행동한다가 52.5%로 제일 높고 사범대학은 41.6%, 해양과학대학은 47.3%, 이공대학은 47.9%로 나타났으며, 농과대학은 확고한 가치관에 의해 행동한다가 35.8%로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반응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확고한 가치관에 의해 행동한다가 35.3%로 여학생(25.5%)보다 높게 반응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적당히 행동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확고한 가치관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보다 적당히 행동하는 기회주의적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있어서 좀더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은 물론 학생지도에 있어서 많은 대화와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적인 환경인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은 학생들이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집단인 만큼 학생들의 진로 및 상담에 있어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11. 교수-학생 인간관계 문제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고 느끼는지와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이 설문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 사이에 얼마만한 대화가 있는지 여부와 그 주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학생 상담 및 지도시에 내실있는 학생지도를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대화의 빈도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 카-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항목에 42.1% 학생들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비교적 적다는 학생이 28.7%로서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42.1%와 조합할 경우 대다수 학생들이 교수와의 대화없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대학별로는 인문대학이 대화가 거의 없다는 항목에 52.1%로 제일 높고 다음은 해양과학대학(47.9%), 사회과학대학(45.0%), 농과대학(38.4%), 이공대학(36.5%), 사범대학(3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없다는 항목과 비교적 적다는 항목을 조합 분석하면 인문계열의 경우가 자연계열보다 대화 빈도가 적게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그나마 대화 빈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 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여학생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 몇 년간 대학교육 지침이 달라지면서 생긴 졸업 정원제로 인하여 중도 탈락에 대한 압박감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간적,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한 교수와의 접촉의 불균형은 물론 교우간에 불신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미 사라진 제도이기는 하나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만남의 기회를 가져 현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 표 카-1 > 학생은 현재 교수님과 대화 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반응항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Total	$\chi^2 - test$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38 (3.7)	70 (6.9)	190 (18.6)	292 (28.7)	429 (42.1)						1,019 (100)	
대학별	인문대학	6 (3.7)	12 (7.4)	17 (10.4)	43 (26.4)	85 (52.1)						163 (16.0)	$df=20$ $\chi^2=64.46$ $P<0.01$
	사회과학대학	1 (0.4)	13 (5.6)	35 (15.2)	78 (33.8)	104 (45.0)						231 (22.7)	
	사범대학	5 (2.5)	5 (2.5)	49 (24.0)	72 (35.3)	73 (35.8)						204 (20.0)	
	농과대학	8 (5.8)	13 (9.4)	25 (18.1)	39 (28.3)	53 (38.4)						138 (13.5)	
	해양과학대학	8 (8.5)	9 (9.6)	14 (14.9)	18 (19.1)	45 (47.9)						94 (9.2)	
	이공대학	10 (5.3)	18 (9.5)	50 (26.5)	42 (22.2)	69 (36.5)						189 (18.5)	
성별	남	30 (4.8)	55 (8.8)	134 (21.4)	175 (27.9)	233 (37.2)						627 (61.5)	$df=4$ $\chi^2=29.71$ $P<0.01$
	여	8 (2.0)	15 (3.8)	56 (14.3)	117 (29.8)	196 (50.0)						392 (38.5)	

무응답자 제외 (27)

- * 1. 아주 많이 하고 있다. 2. 비교적 많이 하고 있다.
- 3. 보통이다. 4. 비교적 적게 하고 있다.
- 5. 거의 하고 있지 않다.

(2) 대화내용

만일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주로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 표 카-2 >와 같이 학업문제로 교수님을 찾는 경우가 45.2%로 제일 높게 반응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래 진로문제, 경제문제, 성격문제, 도덕·종교문제 등의 순으로 나왔다.

대학별로는 6개 단과대학 모두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로 교수님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다음으로는 장래 진로문제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51.9%)이 남학생 (42.3%)보다 학업문제에 있어서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응을 보인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장래 진로문제에 대해서라는 항목에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궁금해 하는 학과 전공에 관한 자세한 홍보나 진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카-2〉 만일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주로 그 대화의 내용은?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27 (5.2)	237 (45.2)	31 (5.9)	27 (5.2)	144 (27.5)	5 (1.0)	6 (1.1)	20 (3.8)	7 (1.3)	20 (3.8)	524 (100)	
대 학	인 문 대 학	5 (7.9)	26 (41.3)	3 (4.8)	3 (4.8)	15 (23.8)	1 (1.6)	1 (1.6)	3 (4.8)	1 (1.6)	5 (7.9)	63 (12.0)	$df = 45$
	사 회 과 학 대 학	4 (3.6)	44 (39.3)	8 (7.1)	4 (3.6)	38 (33.9)	1 (0.9)	1 (0.9)	2 (1.8)	5 (4.5)	5 (4.5)	112 (21.4)	
	사 범 대 학	5 (4.5)	56 (50.0)	6 (5.4)	5 (4.5)	25 (22.3)	1 (0.9)	1 (0.9)	9 (8.0)	1 (0.9)	3 (2.7)	112 (21.4)	$x^2 = 53.27$
	농 과 대 학	4 (5.1)	25 (31.6)	5 (6.3)	5 (6.3)	33 (41.8)	2 (2.5)	1 (1.3)	2 (2.5)	0 (0.0)	2 (2.5)	79 (15.1)	
	해 양 과 학 대 학	3 (6.8)	26 (59.1)	3 (6.8)	2 (4.5)	7 (15.9)	0 (0.0)	1 (2.3)	0 (0.0)	0 (0.0)	2 (4.5)	44 (8.4)	
	이 공 대 학	6 (5.3)	60 (52.6)	5 (5.3)	8 (7.0)	26 (22.8)	0 (0.0)	1 (0.9)	4 (3.5)	0 (0.0)	3 (2.6)	114 (21.8)	
성 별	남	20 (5.5)	154 (42.3)	23 (6.3)	20 (5.5)	109 (29.9)	4 (1.1)	4 (1.1)	12 (3.3)	5 (1.4)	13 (3.6)	364 (69.5)	$df = 9$ $x^2 = 7.08$ N.S.
	여	7 (4.4)	83 (51.9)	8 (5.0)	7 (4.4)	35 (21.9)	1 (0.6)	2 (1.3)	8 (5.0)	2 (1.3)	7 (4.4)	160 (30.5)	

- * 1. 성격문제 2. 학업 (학문) 문제 무응답자 제외 (522)
 3. 경제 문제 4. 도덕 · 종교 문제
 5. 장래 진로 문제 6. 이성 · 결혼 문제
 7. 가정 · 가족 문제 8. 대인 · 우인 문제
 9. 정치 문제 10. 기타

(3) 대화 단절 이유

만일 학생이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 카-3〉에 나타난 것처럼 교수님과의 거리감 때문이라는 항목에 45.1%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교수의 권위적 태도 때문이라는 경우가 (22.9%), 대화의 불필요성 (16.5%), 대화가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대답 (5.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6개 단과대학이 거의 교수에 대한 거리감 때문이라는 대답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양과학대학은 교수의 권위적 태도와 대화의 불필요성 때문이라는 반응이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거리감 때문이라는 반응에 여학생 (54.9%)이 남학생 (39.2%)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고, 교수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반응에는 남학생의 경우가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 설문 결과로 보면 거리감이 있다는 학생이 많았지만 교수님의 권위주의적이고 태도 불응

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원활한 사제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교육방법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화방식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

〈 표 카-3 〉 만일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369 (45.1)	33 (4.0)	187 (22.9)	135 (16.5)	48 (5.9)	46 (5.6)					818 (100)	
대 학 별	인 문 대 학	61 (42.7)	6 (4.2)	27 (18.9)	29 (20.3)	14 (9.8)	6 (4.2)					143 (17.5)	$df=25$
	사 회 과 학 대 학	87 (46.0)	7 (3.7)	42 (22.2)	24 (12.7)	13 (6.9)	16 (8.5)					189 (23.1)	
	사 범 대 학	69 (45.4)	5 (3.3)	35 (23.0)	29 (19.1)	7 (4.6)	7 (4.6)					152 (18.6)	$\chi^2=30.07$
	농 과 대 학	48 (43.6)	6 (5.5)	28 (25.5)	15 (13.6)	4 (3.6)	9 (8.2)					110 (13.4)	N.S.
	해 양 과 학 대 학	26 (34.7)	2 (2.7)	26 (34.7)	16 (21.3)	3 (4.0)	2 (2.7)					75 (9.2)	
	이 공 대 학	78 (52.3)	7 (4.7)	29 (19.5)	22 (14.8)	7 (4.7)	6 (4.0)					149 (18.2)	
성 별	남	200 (39.2)	26 (5.1)	132 (26.9)	84 (16.5)	26 (5.1)	37 (7.3)					510 (62.3)	$df=5$
	여	169 (54.9)	7 (2.3)	50 (16.2)	51 (16.6)	22 (7.1)	9 (2.9)					308 (37.7)	$\chi^2=31.50$ $P < 0.01$

무응답자 제외 (228)

- * 1. 학생의 교수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 2. 교수의 대화 불응 때문에
- 3. 교수의 권위적 태도 때문에
- 4.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 5. 대화를 통해서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 6. 기타

(4) 교수에 대한 기대감

학생들은 교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표 카-4〉와 같이 인간적인 접촉을 기대한다(57.6%)는 항목에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외로 충실한 강의(12.9%), 성실한 학생지도(11.6%), 학문연구(8.4%), 인격자(7.3%), 기타(2.2%) 순으로 반응을 나타냈다.

대학별로는 6개 단과대학 모두가 인간적인 접촉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은 충실한 강의를 기대한다는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은 성실한 학생지도에 기대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여학생(60.2%)이 남학생(56.0%)보다 인간적 접촉을 더욱 기대한다는 반응을

< 표 카-4 > 학생이 교수님에 대해 거는 기대는 ?

구분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25 (12.9)	81 (8.4)	113 (11.6)	559 (57.6)	71 (7.3)	21 (2.2)					970 (100)	
대학	인문대학	24 (15.4)	12 (7.7)	14 (9.0)	83 (53.2)	18 (11.5)	5 (3.2)					156 (16.1)	$df=25$
	사회과학대학	27 (11.9)	13 (5.7)	21 (9.3)	151 (66.5)	8 (3.5)	7 (3.1)					227 (23.4)	
	사범대학	25 (13.2)	12 (6.3)	18 (9.5)	112 (58.9)	21 (11.1)	2 (1.1)					190 (19.6)	$\chi^2=49.00$
	농과대학	12 (9.2)	15 (11.5)	21 (16.0)	71 (54.2)	7 (5.3)	5 (3.8)					131 (13.5)	
	해양과학대학	12 (14.0)	4 (4.7)	13 (15.1)	53 (61.6)	4 (4.7)	0 (0.0)					86 (8.9)	$P < 0.01$
	이공대학	25 (13.9)	25 (13.9)	26 (14.4)	89 (49.4)	13 (7.2)	2 (1.1)					180 (18.6)	
성별	남	76 (12.7)	61 (10.2)	75 (12.5)	335 (56.0)	37 (6.2)	14 (2.3)					598 (61.6)	$df=5$ $\chi^2=11.15$ $P < 0.05$
	여	49 (13.2)	20 (5.4)	38 (10.2)	224 (60.2)	34 (9.1)	7 (1.9)					372 (38.4)	

무응답자 제외 (76)

- * 1. 충실한 강의
- 2. 학문연구
- 3. 성실한 학생지도
- 4. 학생과의 인간적 접촉
- 5. 인격자
- 6. 기타

보였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제간에 생기는 불신감으로 인해 교수님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고, 교수님이 먼저 접촉해 오기를 바라는 학생의 소극적인 행동도 사제지간의 인간적인 접촉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나 교수님들이 학생지도시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폭넓은 대화시간 및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

12. 장래 진로문제

이번 설문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어떤 진로계획을 갖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생 진로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1) 진로계획

학생은 졸업 후 어떤 진로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 표 타-1 >에 나타난 것처럼 대다

수 학생인 61.5%가 졸업 후에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타-1〉 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χ^2 -test
		N(%)	N(%)	N(%)	N(%)	N(%)	N(%)	N(%)	N(%)	N(%)	N(%)	N(%)	
전 체		588 (61.1)	158 (16.4)	39 (4.0)	44 (4.6)	68 (7.1)	10 (1.0)	30 (3.1)	26 (2.7)			963 (100)	
대 학	인 문 대 학	103 (67.3)	23 (15.0)	9 (5.9)	5 (3.3)	3 (2.0)	1 (0.7)	6 (3.9)	3 (2.0)			153 (15.9)	$df=35$
	사 회 과 학 대 학	142 (64.8)	26 (11.9)	13 (5.9)	4 (1.8)	17 (7.8)	2 (0.9)	10 (4.6)	5 (2.3)			219 (22.7)	
	사 법 대 학	128 (66.7)	31 (16.1)	2 (1.0)	6 (3.1)	15 (7.8)	1 (0.5)	3 (1.6)	6 (3.1)			192 (19.9)	$\chi^2=51.55$
	농 과 대 학	69 (52.3)	24 (18.2)	4 (3.0)	9 (6.8)	13 (9.8)	2 (1.5)	6 (4.5)	5 (3.8)			132 (13.7)	
	해 양 과 학 대 학	52 (58.4)	15 (16.9)	4 (4.5)	8 (9.0)	6 (6.7)	0 (0.0)	2 (2.2)	2 (2.2)			89 (9.2)	$P < 0.05$
	이 공 대 학	94 (52.8)	39 (21.9)	7 (3.9)	12 (6.7)	14 (7.9)	4 (2.2)	3 (1.7)	5 (2.8)			178 (18.5)	
성 별	남	307 (51.3)	112 (18.7)	29 (4.8)	33 (5.5)	68 (11.4)	8 (1.3)	23 (3.8)	19 (3.2)			599 (62.2)	$df=7$ $\chi^2=82.20$ $P < 0.05$
	여	281 (77.2)	46 (12.6)	10 (2.7)	11 (3.0)	0 (0.0)	2 (0.5)	7 (1.9)	7 (1.9)			364 (37.8)	

무응답자 제외 (83)

- * 1. 취직
- 2. 대학원 진학
- 3. 해외유학
- 4. 결혼
- 5. 군복무
- 6. 타대학 편입
- 7. 당분간 쉬겠다.
- 8. 기타

대학별로도 6개 단과대학 모두가 50% 이상이 직장을 갖고 싶다는 항목에 반응을 보였으며, 타대학에 비해 이공대학 학생이 대학원 진학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가 77.2%로 남학생 51.3%보다 직장을 원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고, 반면에 남학생들에게서는 계속적으로 학업을 원하는 반응도 높게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고등실업자가 취업난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배출되는 인재에 비해 고등인력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사회구조와 좋은 직장만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불균형 때문이라 보아진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한 반면 농촌은 일손이 모자라 임금을 올려서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가끔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도시 인구 집중이란 보도가 그런 예이기도 하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안일하고 손쉬운 직업을 원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등을 고려하여 후회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야 하겠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취업 진로의 기초가

되어주는 것은 물론 교·내외 취업 진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야 하겠다.

(2) 직업 선택시 중요점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시되는 점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표 타-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과반수 이상의 학생 (53.8%)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한 직업 (31.5%)도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타-2> 직업 선택에서 중요시하는 점은?

반응항목		1	2	3	4	5	6	7	8	9	10	Total	$\chi^2 - test$
구분	인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316 (53.8)	185 (31.5)	27 (4.6)	47 (8.0)	6 (1.0)	3 (0.5)	3 (0.5)				587 (100)	
대 학	인 문 대 학	58 (56.3)	35 (34.0)	4 (3.9)	4 (3.9)	2 (1.9)	0 (0.0)	0 (0.0)				103 (17.5)	$df=35$ $\chi^2=51.55$ $P<0.05$
	사 회 과 학 대 학	74 (52.1)	45 (31.7)	9 (6.3)	10 (7.0)	1 (0.7)	2 (1.4)	1 (0.7)				142 (24.2)	
	사 범 대 학	77 (60.6)	28 (22.0)	4 (3.1)	15 (11.8)	1 (0.8)	1 (0.8)	1 (0.8)				127 (21.6)	
	농 과 대 학	32 (46.4)	30 (43.5)	1 (1.4)	4 (5.8)	1 (1.4)	0 (0.0)	1 (1.4)				69 (11.8)	
	해 양 과 학 대 학	28 (53.8)	12 (23.1)	6 (11.5)	6 (11.5)	0 (0.0)	0 (0.0)	0 (0.0)				52 (8.9)	
이 공 대 학	47 (50.0)	35 (37.2)	3 (3.2)	8 (8.5)	1 (1.1)	0 (0.0)	0 (0.0)				94 (16.0)		
성 별	남	157 (51.1)	100 (32.6)	18 (5.9)	25 (8.1)	2 (0.7)	3 (1.0)	2 (0.7)				307 (52.3)	$df=6$ $\chi^2=7.19$ $N.S.$
	여	159 (56.8)	85 (30.4)	9 (3.2)	22 (7.9)	4 (1.4)	0 (0.0)	1 (0.4)				280 (47.7)	

무응답자 제외 (459)

- * 1. 자기의 개성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 2. 안정된 직업
- 3. 수입이 많은 직업
- 4. 사회에 쓸모있는 직업
- 5. 작업시간이 짧은 직업
- 6.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직업
- 7.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직업
- 8. 기타

대학별로는 농과대학을 제외한 5개 단과대학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성별로는 여학생 (56.8%)이 남학생 (51.1%)보다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응에 다소 높게 반응을 보였다.

설문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성이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있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 직업 선택시 자신의 능력이나 개성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학교측에서도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하여 학생 자신의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V. 綜合的인 學生指導 方案

여기에서는 대학생의 態度 및 意識構造 調査에서 밝혀진 事實을 먼저 分析·檢討한 후, 그 結果를 토대로 綜合的인 學生指導 方案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밝혀진 主要 事實

대학생의 태도 및 의식구조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事實들을 영역별로 要約·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專攻 不適應과 轉科問題

① 대학생들의 전공학과 선택 동기는 전체별로 보면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이 32%로 제일 높고, 다음 입학가능성이 22.4% 순이다. 대학별로는 前者가 인문대학이 50%로 제일 높고, 後者가 농과대학으로 33.3%로 제일 많다. 성별로는 여학생(36.4%)이 남학생(29.2%)보다 적성·흥미를 더 고려했다.

②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과 조금 만족한다가 각각 31.7%, 31.2%이며, 이런 경향은 사회과학대학(35.7%)이 높다. 여학생(44.6%)보다 남학생(46.4%)이 약간 만족한 듯이 보인다.

③ 전공학과의 불만의 큰 이유는 첫째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24.8%), 둘째 장래의 전망이 어둡다(18.6%)이다. 인문대학은 교과내용 빈약(27.2%)·어두운 장래 전망(18.5%)을, 사회과학대학은 적성·흥미 불일치(29.2%)·능력과 불일치(16.7%)을, 사범대학은 적성·흥미 불일치(23.2%)·교과내용 빈약(23.1%)을, 농과대학은 적성·흥미 불일치(29.8%)·일차 희망 아님(19.3%)을, 해양과학대학은 어두운 장래 전망(28.6%)·적성 불일치(20.4%)를, 이공대학은 적성 불일치(32.6%)·어두운 장래 전망(18%)을 불만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학생(21.5%)은 어두운 장래 전망에서, 여학생(21.3%)은 교과내용 빈곤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④ 전과 희망의 학생은 전체의 46.6%이며, 단과대학 중 농과대학(59.7%)이 가장 높다. 여학생(43.1%)보다는 남학생(48.9%)이 전과 희망률이 높다.

2) 交友關係 問題

①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75.2%)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공대학

(81.6%)이 타대학(7할 이상)보다 높은 경향이다. 남학생(76.7%)이 여학생(72.9%)보다 친구와의 원만도가 다소 높다.

② 학생들은 소극적인 태도(39.5%)·사교성 부족(24.3%)·열등감(18.5%) 등으로 인해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극적인 태도(50.9%)는 사회과학대학, 사교성 부족(31.4%)은 이공대학, 열등감(24.4%)은 농과대학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다. 여학생은 소극적인 태도(42%), 남학생은 열등감(20.3%)을 친구관계에서 곤란을 느끼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대다수의 학생들이(77.7%)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각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향은 여학생(82.1%)이 남학생(75%)보다 높게 나타났다.

④ 이런 친구는 넓은 이해심(28.2%)·원만하고 명량한 성격(22.5%)·비슷한 성격(18.5%)·정직성(14.4%)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넓은 이해심(34.7%)은 농과대학, 원만·명량한 성격(26.6%)은 이공대학, 유사한 성격(26.4%)은 사범대학, 정직성(17.9%)은 해양과학대학에서 비교적 높다. 넓은 이해심은 여학생(33.1%)이 남학생(25.1%)보다 훨씬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⑤ 친구와의 대화의 내용은 60.3%의 학생들이 현실문제이고, 농과대학(54.5%)이 가장 낮은 반면에 인문대학(66.7%)이 가장 높고, 나머지 대학들도 6할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다. 여학생(62.1%)이 남학생(59.1%)보다 현실문제에 다소 관심이 높다.

3) 異性 및 性問題

① 4할 이상의 학생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해양과학대학(52.4%)이 제일 높고, 인문대학(35.7%)이 가장 낮은 편이다. 남학생(49.1%)이 여학생(38%)보다 반응률이 훨씬 높다.

② 6할 이상의 학생(64.3%)들은 상대방의 성격을 이성 선정시에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사범대학과 이공대학(7할 이상)이 타 대학보다 매우 높다. 남녀 공히 성격(64%)을 중시하는 외에, 남학생은 외모(9%), 여학생은 생활능력(9.4%)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③ 이성과 접촉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40.5%)·학교(19.7%)·친구의 소개(17.6%)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연한 기회는 사범대학과 해양과학대학(44.4%), 학교는 인문대학(26.3%), 친구 소개는 사회과학대학(23.2%)이 높은 경향이다. 남학생은 우연한 기회(41.2%)·친구의 소개(20.3%), 여학생은 학교(24.3%)·씨름활동(15.4%) 등으로 성차에 따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④ 학생들은 첫째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41.3%), 둘째 이성에 대한 이해(24.6%),

세계 결혼대상의 선택 (17.7%)을 하기 위하여 이성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반응은 인문대학 (45.6%), 이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과학대학 (29%), 결혼과 결부한 학생은 해양과학대학 (24.4%)이 각각 높은 경향이다.

폭 넓은 대화를 위한 교제를 원하는 경향은 여학생 (50%)이 남학생 (37%)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에, 결혼대상을 선택키 위한 교제의 경향은 남학생 (22%)이 여학생 (9%)보다 훨씬 높다.

⑤ 남녀 교제에서 지도 조언을 받고싶은 문제로서는 원만한 교제방법 (36.4%) · 대화의 요령 (15.1%) · 이성심리 (14.4%) 등이다. 원만한 교제방법에 대해서는 사범대학 (44.2%), 대화 요령에 대해서는 이공대학 (20.7%), 이성심리는 사회과학대학 (19.6%)이 타 대학보다 높은 경향이다. 원만한 교제방법은 남학생 (31.7%)보다 여학생 (46.3%)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⑥ 47%의 학생들은 연애와 결혼은 결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범대학과 인문대학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여학생 (52%)이 남학생 (43.8%)보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餘暇善用 問題

① 학생들은 현재 친구와의 교제 (24.4%) · 취미생활 (21%) · 교양서적 탐독 (19.6%) · 씨클활동 (11.3%)을 통해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고, 농과대학 (29.9%)은 친구와의 교제, 이공대학 (24.2%)은 취미생활, 인문대학 (25.6%)은 교양서적 탐독으로 특색있게 여가 선용을 하고 있다.

남녀 공히 친구와의 교제 (24.6%, 23%)이지만, 취미생활은 남학생 (24.1%)이, 교양서적 탐독은 여학생 (25.1%)이 높은 반응을 보인다.

5) 씨클活動 問題

① 45.2%의 학생들이 현재 씨클활동을 하고 있다. 농과대학 (52.3%)이 참여도가 높고, 그외 대학도 모두 4할을 넘고 있다. 여학생 (47.3%)이 남학생 (43.9%)보다 참여도가 높다.

② 학생들은 씨클활동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38.6%) · 인격적 교양 증대 (13.3%) · 폭 넓은 사회 경험 (10.5%) · 건전한 이성교제 (9.8%)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은 해양과학대학 (47.2%), 인격적 교양증대는 인문대학 · 이공대학 (17.9%, 17.3%)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다.

남학생은 인격적 교양증대 (14.8%)와 지도성 함양 (7.4%)을 강조하는 반면, 여학생은 원만한 대인관계 (40.1%)와 폭 넓은 사회경험 (13.4%)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③ 씨클활동의 불만요인으로 구성원의 인화단결 안됨 (25.5%) · 활동내용에 새로운 점 없음 (21.5%) · 임원의 리더십 부족 (18.7%) · 지도교수 무성의 (14.6%) 를 열거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은 구성원간의 인화단결 안됨 (32.1%), 사범대학은 활동내용 빈곤 (25%), 농과대학은 지도교수 무성의 (24.2%) 를 불만으로 표시하고 있다.

남녀가 구성원의 인화단결 부족 (25.9%, 24.8%) 을 공통으로 지적하는 외에, 남학생은 지도교수 무성의 (16.3%), 여학생은 리더십 부족 (21%) 과 활동내용 빈곤 (24.2%) 에 더 불만을 두고 있다.

④ 씨클 활동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의결 (31.8%) · 선배 (27.7%) · 씨클간부 (24.5%) · 실력자 (9.2%) 등이다. 전체회의 의결과정은 해양과학대학 (46.2%), 선배에 의한 역할은 농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31.3%) 이 높다. 선배의 역할은 남녀 (30.1%, 29.2%) 간에 차이가 없지만, 씨클 간부 역할은 여학생 (26.2%) 이 조금 높다.

⑤ 대학생의 씨클활동 성격은 사회봉사와 개선을 위한 것 (36.6%) · 교양 증진을 위한 것 (33.9%) · 학술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13%)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봉사의 개선을 위한 성격은 해양과학대학 (44.3%), 교양 증진의 성격은 인문대학 (41.1%) 이 높다. 사회봉사와 개선은 남학생 (40.0%) 이, 교양 증진은 여학생 (40.8%) 이 각각 이성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⑥ 학업과 씨클활동간의 비중에 있어서 전체의 32.7%가 양자간에 똑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비중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26.7%에 이른다. 동일한 비중은 사범대학 (39.7%) 이 현저하다. 또 여학생 (37.7%) 이 남학생 (29.7%) 보다 이런 경향이 매우 높다.

6) 學生生活研究所 問題

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세 가지 기능은 첫째 취업보도 (34.6%), 둘째 각종 학생생활 조사 분석 (16.6%), 셋째 부직 알선 (15.7%), 그외 교양특강 실시 (12.9%) 이다. 취업보도의 강화의 필요성은 이공대학 (40.2%), 조사분석 기능은 해양과학대학 (22.4%), 교양특강 실시는 사범대학 (22%) 이 강조하고 있다.

남녀 공통으로 취업보도 (34%) 를 역설하는 외에, 남학생은 조사분석 (20%), 여학생은 부직알선 (20.1%) 과 교양특강 (17%) 을 더 강조하는 것이 이채롭다.

② 학생들은 교양과 취업 특강 모두가 실시되기를 원하고 (45.5%), 이런 반응 경향성은 사범대학 (53.4%) 이 높고, 취업 특강은 해양과학대학 (44.6%) 이 높다.

취업 특강의 강조는 남학생 (40.2%), 교양특강은 여학생 (20.8%) 이 높은 편이다.

③ 학생들은 교양특강을 한 학기에 두 번 정도가 좋다고 반응하고 있고 (58.8%), 이런

반응은 사범대학을 정점으로 6 할 이상이거나 이에 거의 이르고 있다. 여학생 (62.8 %) 이 남학생 (56.2 %) 보다 이런 반응이 높다.

④ 취업정보 특강도 한 학기에 두 번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고 (56.2 %), 해양과학대학 (61.4 %) 을 정점으로 모든 대학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학생 (59.8 %) 쪽이 우세한 경향이다.

⑤ 교양과 취업 특강은 남녀 구분없이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 (69 %) 이다. 대학별로도 6 ~ 7 할 이상의 학생들이 그러하며, 남학생 (70.6 %) 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⑥ 그리고 이런 특강을 위한 연사로서는 학내외 저명인사 (71.4 %) 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지만, 본교 교수 (5.9 %) 보다 타교 교수 (15.3 %) 도 선호하는 입장도 있다.

학내외 저명인사의 선호는 사회과학대학 (74.7 %) 이 높고, 타교 교수의 선호도는 인문대학 (24.4 %) 과 해양과학대학 (20.2 %) 이 비교적 높다. 남녀간의 선호도는 대차가 없다.

7) 副職問題

① 현재 부직을 갖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7.4 %이며, 부직을 갖고싶은 학생은 74.9 % 이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부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은 대학은 사범대학 (18.7 %) 을 정점으로 인문대학 (7.5 %) 의 순이다. 따라서 부직을 가장 많이 원하는 대학은 인문대학 (82 %) 이다.

남학생 (73.5 %) 보다 여학생 (77.1 %) 이 더 부직을 원하고 있다.

② 이런 부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사회경험 얻기 (31.2 %), 용돈마련 (23.1 %) · 학비마련 (17.9 %) · 자립정신 (17.5 %) 등이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사회경험 얻기는 농과대학 (37.8 %) · 인문대학 (33.8 %) · 이공대학 (33.3 %) · 해양과학대학 (31.5 %) 이며, 학비 마련은 사범대학 (22 %) 과 농과대학 (19.7 %) 이다.

남학생은 사회경험 (32.6 %), 여학생은 용돈 마련 (27.4 %) 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다.

8) 家庭問題

① 현재 학생들 중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학생은 44.7 %이며, 대학별로는 사범대학 (50.8 %) 이 가장 높고, 해양과학대학 (37.4 %) 이 가장 낮다. 여학생 (39.9 %) 보다 남학생 (47.5 %) 이 문제성을 지적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

② 어떤 문제인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 (56.2 %) · 가족원 불화 (23 %) · 건강 (12.7 %) 이다. 사범대학 (60.4 %) 을 기점으로 타 대학들의 5 할 이상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 (57.8 %) 의 경우가 심각하다.

③ 현재 학생이 가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서는 자신에 대한 큰 기대 (49.8 %) · 지나친 간섭과 통제 (17.1 %) · 적은 용돈 (10.9 %) 이다. 지나친 기대감의 문제는 사범대학

(57.8%), 심한 간섭과 통제는 인문대학(24.2%)이 높다.

남학생은 지나친 기대감(53.3%), 여학생은 심한 통제와 간섭(23.2%)에서 성차에 따른 문제의식을 노출시키고 있다.

9) 性格 및 身體 健康問題

①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서 자신감의 부족(34.4%)·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17.6%)·일에 대한 신중성(16.7%)을 기한다고는 것이다. 자신감의 부족은 인문대학(39.7%), 일의 신중성은 농과대학(21.7%), 심한 공상은 해양과학대학(22%)이 높다.

남학생은 일의 신중성(18.9%), 여학생은 자신감 부족(38.8%)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② 자신의 신체평가에서는 운동부족(24.3%)·머리가 무겁다(18%)·시력 약화(14.9%)·작은 키(13.8%)이다. 운동부족은 해양과학대학(33.3%), 머리가 무겁다가 인문대학(25.2%), 시력 약화는 사범대학(18.8%)이 보다 높다.

남학생은 운동부족(27.2%)·약체(17.9%), 여학생은 머리의 무거움(22.3%)·시력 약화(22.6%)에서 반응이 높다.

10) 價値觀의 問題

① 현재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 적당히 행동한다는 학생은 46.8%이고, 확고한 가치관에 의해 움직인다는 학생은 31.6%이며, 안일한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학생은 10%이다. 이를 대학별로 분석하면 적당히 행동하는 학생은 인문대학(52.5%)·이공대학(47.9%)·사범대학(41.6%)의 순이고, 확고한 가치관에 의한 학생은 농과대학(35.8%)이 많다.

성별로는 남학생(35.3%)이 확고한 가치관에 움직이는 쪽이고, 여학생(56.2%)은 적당히 행동하는 편이다.

② 현재 과반수 이상의 학생(58.8%)들은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가치관의 차이를 다소 느끼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인문대학(63.8%)을 으뜸으로 모든 대학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학생(53.3%)보다 여학생(59.9%) 쪽이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느끼는 것 같다.

③ 현재 학생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려는 목표를 보면 화목한 가정(39.5%)·사회봉사(17.8%)·돈 재산(8.2%)·의리있는 친구(7.2%)이다. 화목한 가정 형성을 각 대학이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농과대학(47.3%)이 눈에 띈다.

이런 현상은 여학생(44%)이 남학생(36.7%)보다 훨씬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11) 教授 - 學生 人間關係 問題

①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70%)은 교수와 대화를 적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대학의 순위는 인문대학 (52.1 %) · 해양과학대학 (47.9 %) · 사회과학대학 (45 %)이다. 이 의사불통의 경향은 남학생 (37.2 %)보다 여학생 (50.0 %) 쪽이 훨씬 우세하다.

(2) 학생들은 이 대화단절의 큰 이유로서 첫째 교수와의 거리감 (45.1 %), 둘째 교수의 권위적 태도 (22.9 %)를 들고 있다. 5개 단과대학 학생들의 4~5할 정도가 교수와의 거리감을 들고 있으며, 특히 해양과학대학 학생들이 교수의 권위적 태도 (34.7 %)를 크게 내세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런 권위적 태도는 남학생 (26.9 %), 거리감은 여학생 (54.9 %)이 대화 기피의 큰 원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3) 만일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내용으로는 학업문제 (45.2 %) · 장래 진로문제 (27.5 %)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학업문제로서의 대화는 해양과학대학 (59.1 %) · 이공대학 (52.6 %) · 사범대학 (50 %)이 활발하고, 장래 진로문제는 농과대학 (41.8 %) · 사회과학대학 (33.9 %)에서 활발한 편이다.

여학생은 학업문제 (51.9 %), 남학생은 장래 진로문제 (29.9 %)에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4)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 거는 기대로서는 첫째 학생과의 인간적인 접촉 (57.6 %), 둘째 충실한 강의 (12.9 %), 셋째 성실한 학생 지도 (11.6 %)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학생과의 인간적 접촉은 모든 대학의 5~6할 이상의 학생들이 회고하고 있으며, 성실한 학생지도는 농과대학 · 해양과학대학 · 이공대학의 학생들로서 1할을 넘고 있다.

또 이런 인간적 접촉에 대한 기대는 남학생 (56 %)보다 여학생 (60.2 %)이 더 크다.

12) 將來의 計劃

(1) 졸업후 학생들의 진로계획을 보면 대다수 학생 (61.5 %)들이 취직을 하겠다는 것이며, 각 대학별로는 5~6할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직업 선택의 선호도는 여학생 (77.2 %)이 높은 반면에, 대학원 진학은 남학생 (18.7 %)이 높은 편이다.

(2) 학생들은 현재 직업 선택시에 첫째 자기의 개성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53.8 %), 둘째 안정된 직업 (31.5 %)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개성 ·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중시하는 대학은 5개 단과대학들이 5~6할 이상이며, 특히 안정된 직업에 대한 고려는 농과대학 (43.5 %)이 높다.

이런 개성 · 능력의 중시는 여학생 (56.8 %)이 높은 반면에, 남학생 (32.6 %)은 안정된 직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2. 綜合的인 學生指導 方案

여기에서는 12개 영역에서 밝혀진 주요한 事實들을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데 健全한 適應을 도울 수 있는 合理的이고 綜合的인 指導方案을 다음과 같이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1) 專攻 不適應에 대한 指導 強化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전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고, 전공학과에 대한 조금 만족도도 이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전공 부적응에 대한 學生들의 被害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副專攻·複數專攻에 대한 적극적인 情報 傳達과 아울러, 대학 자체로서 系列을 고려한 合理的인 轉科制度 復活 運營 및 학업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講義法 改善方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알맞는 適切한 教育指導가 없음으로 인해서 특수분야의 天才의 人間이 암장되고 있다면 이는 個人的 不幸이며 크게는 社會의 損害인 것이다.⁴⁷⁾

2) 幅 넓은 交際를 할 수 있는 機會 提供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와 사교성 부족 및 열등감 때문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전한 교우관계를 맺기 위한 상담지도가 요구된다.

Ⅲ 章 2의 독립의 요구와 동료의 관계에서 지적한 대로 청년기의 友人集團은 성인사회에서의 代價의 地位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이며, 특유한 大學生 文化가 형성·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 友人集團을 통해서 타인 지향적인 경향도 일어나지만, 深淺各層의 교우들과도 모순 갈등되는 일이 없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광범하게 교제할 수 있는 社會性이 배양됨과 동시에 각자가 훌륭한 友人이 될 수 있는 資質을 기르기 위한 個別·集團 相談 指導(교양특강)의 기회가 크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젊은이들이 건전한 交友關係를 통해서 대학생 특유의 發展的이며 探索的인 文化가 형성될 수 있도록 學內에서의 施設·空間을 新設·擴充해 주는 行·財政的 支援도 적극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3) 性教育의 推進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4할 이상의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또 이성접촉의 계기는 우연한 기회라는 반응이다. 7할 이상이 대화의 폭을 넓히고, 이성에 대한 이해와 결혼대상의

47) 정범모, 일반적성분류검사 검사법 요강(중·고·대·일반용), (서울: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1969), pp.35~36.

선택으로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다.

Ⅲ章 3의 이성관계에서도 고찰한 것처럼, 오늘날 청년기의 발달의 가속화와 장기화 및 성문화의 개방에서 오는 부적응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건전한 이성관률 갖기 위해서도 性教育의 必要性은 절실한 바 있다.

성교육은 성차에 따른 남녀간의 특성과 인간으로서의 평등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바탕위에 과학적인 성 지식의 전달이 건전한 성 의식으로 학생들의 인격속에 내면화되어 행복한 가정인·유용한 사회인이 되게 하는 全入教育이어야 하며, 또한 복잡한 사회에서 범람하는 자극적인 性 情報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健全한 批判力과 選別能力을 길러 性非行과 性犯罪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의 자유로운 男女共學의 環境을 고려해 볼 때,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서 간이식당·오락실을 신설·확충함은 물론, 성에 관련된 교양강좌와 교양특강 및 남녀 혼합인 씨클 지도 등 개별 및 집단 지도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자유로운 이성교제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이성관·결혼관을 심어주는 데 관련 당국은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될 것이다.

4) 積極的인 餘暇 指導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와의 교제·취미생활·교양서적 탐독·씨클활동 등을 통해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生活指導에도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Ⅲ章 6의 여가 및 오락에서 검토했듯이, 여가 지도는 학생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풍부하고 광범위한 學習環境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의 精神健康 增進 뿐만아니라 工夫나 일의 能率向上에 중요하다.

한창 성장 발달하는 학생이 여가시간을 선용치 못하고 방치하면, 오히려 나쁜 행동으로 유도되기 쉬워 靑少年非行을 유발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餘暇時間을 잘 測定하여 發達段階에 알맞는 指導 프로그램을 발굴, 어릴 때부터 다음 事項에 유의, 指導에 힘써야 한다.

① 정신적·신체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② 취미생활·심신의 개발·정신위생·소질의 개발 및 창의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게 지도한다.

③ 개인의 적성·취미를 고려한 선택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④ 학교 씨클활동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지도한다.⁴⁸⁾

5) 새로운 씨클指導方案 探究 必要

현재 4 할 이상의 학생들이 씨클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같은 비율의 여학생이 남학생보

48) 金正吉, “靑少年 生活指導의 重要性和 方向”, 「교육개발」, 제 5 권 제 4 호 (1983. 8), pp.10 ~ 11.

다 높은 참여도와 3할 이상의 학업과 씨클활동간의 동등한 비중도는 씨클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도방법의 동원을 요청한다.

물론 씨클활동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인격적 교양증대·폭 넓은 사회경험·건전한 이성교제라는 학습지도에서는 언어볼 수 없는 順機能도 있지만, 자칫 지도교수의 부재와 불성실하게 운영될 때에는 비교육적인 逆機能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지도교수의 臨場指導는 물론 씨클의 활동계획·실천·평가 단계에의 적극적 참여 및 지도는 명실공히 學習의 延長으로서 그 教育的 機能을 크게 발휘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의 보완·감정적 욕망의 승화·자아와 사회 및 국가의식의 증진도 씨클활동과 그 봉사활동에서 얻어질 수 있는 큰 성과인 바, 앞으로 順機能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씨클의 방향 설정은 씨클 지도자에 크게 의존하는바, 훌륭한 지도자를 위한 수련회·간담회를 통하여 리더십 함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본래 기능의 발휘와 훌륭한 공헌을 한 씨클에 대해서는 씨클의 귀감으로서 行·財政的 支援을 倍加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指導教授에 대해서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6) 學生生活研究所의 多様な 機能 強化

학생들은 학생생활연구소의 機能으로 취업보도·조사 분석·부직 알선·취업보도 및 교양특강을 열거하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들의 奉仕機關으로서 앞으로 건전하고 풍요한 大學生活를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기능만을 신장시킬 것이 아니라 취업보도·조사 분석·부직 알선·심리 검사·특강 실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학생의 문제분석과 이에 따른 지도방향을 탐색키 위하여 소집단과 대집단 단위의 간부 좌담회·씨클 지도자회의·학년 대표자회의·단대별 간부 간담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수렴, 학교 당국에 건의하는 등 학생과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매개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폭 넓은 다양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적극적인 行·財政的 支援이 절실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덧붙여, 부직 알선을 위한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도 더욱 요망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생이 사회경험을 얻고·용돈과 학비마련을 위해 부직을 원한다는 응답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총동창회·전 교수·학교 당국이 舍道에 걸친 機關과의 協力體制를 이루는 획기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不利益을 최소로 막기 위해서는 취업보도 특강은 물론,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치관과 교양을 형성키 위한 교양특강 실시에도 관심있는 教育的 配慮가 必要하다.

이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선정 및 모색 등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7) 學父母 懇談會 및 家族相談制度의 強化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자신에 대한 큰 기대와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제시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親子間의 가치관의 갈등을 느끼고 있다.

“問題父母에게 問題兒가 있다”라는 격언이 시사하듯이, 문제청년의 배후에는 그 문제를 파생케 하는 부모의 무관심·몰이해·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 중요한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부모들은 급변하는 사회 변천에 부응해서 指導育成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 Ⅲ章 7의 2) 청년기의 가치관의 갈등에서 고찰한 것처럼, 한편에는 서구적 외래문화에 쉽게 호응하지 않고 과거 전통문화에의 집착의 경향이 있는 심리-생리적으로 노화상태에 있는 既成世代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문화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는 젊은 世代가 있다는 것은 알력과 갈등으로 드러난다. 그러기에 부모측에서도 자기의 경험과 가치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 대생활에 대한 부모의 적응이 총명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생활태도나 가치관에 있어서나 자녀의 그것과 世代差가 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⁴⁹⁾ 부모들의 기준으로의 強壓的 同一視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반발과 이탈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援助로서는 입학과 졸업시·학기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社會教育의 一環으로서 교양특강 및 간담회를 통한 청소년 심리와 학교 정보 등을 전달함으로써 부모측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일련의 教育的 行事は 청년과의 심리적 거리를 축소시켜 세대간의 대립 해소에는 물론, 학교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專門家들을 통한 家族相談이나 카운슬링의 활용을 통해 청년들의 가정에서의 부적응과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家族相談制度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⁵⁰⁾ 그렇다는 것은 청년의 문제는 가정내의 關係機能의 不適切함에서 기인되고 있는 수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즉 가족들 중에는 부모가 건재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지 않음에도 親子間의 정서적 기능이나 역할 수행이나 기대면에서 파탄되는 가정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8) 相談活動 活性化

현재 학생들의 대부분은 性格問題로서 자신감의 부족·잔 걱정·일에 대한 신중성을 지적하고 있다.

앞의 6)의 학생생활연구소 기능 강화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그 기능의 하나는 카운슬러가 각종 心理檢査를 실시하여 심오한 심리학적 이론과 풍부한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기 통찰과 자기 통제에 의하여 자기의 내면적 긴장이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 지도할 수 있는 專門的인 相談活動이 적극 요망된다. 신뢰할 수 있는 카운슬러와의

49) 桂廣介, 前掲書, pp.95 ~ 96.

50) 李星珍外 二人編, 國家發展과 靑少年 (서울: 培英社, 1977), p.122.

Counseling을 통해서 새로운 洞察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性格의 轉換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진전한 신체에 진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대학의 厚生課의 소극적 기능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厚生福祉 및 健康增進을 위한 기능발휘를 위해 學生生活研究所와 긴밀한 유대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9) 教育愛와 實質的 權威에 의한 學生指導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와의 거리감과 태도 때문에 교수와 대화를 적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한 試圖가 절실하다.

교사와 학생의 결합을 이루는 心理的 契機는 교사의 교육애와 이성적 권위·학생의 신뢰와 존경이며, 그 결합을 이루는 實際的 契機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의 교육적 장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다. 이것이 곧, 교사와 학생관계의 本質的인 特質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애와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자 한다.⁵¹⁾

㉞ 教育愛

愛情이란 타인이나 사물에 대한 情緒的인 親密感을 갖는 것으로, 교육애는 친근감·상호 이해·신뢰와 존경·봉사와 희생을 내포하는 애정이 있는 인간관계의 특질을 갖추는 것인바, 이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親近感: 양자간에 친근감, 즉 만나보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곧 애정이 있는 인간관계의 증좌이다.

둘째 相互理解: 個性의 存在간에 인간관계를 맺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상호 이해이다. 이 상호이해가 이루어진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이 自己表現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또한 오해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셋째 相互 信賴와 尊敬: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는 상호이해를 토대로 한다. 특히 교육적 관계에서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관대히 임하고, 그러한 교사 밑에서 학생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인간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소위 教育的 感應(人格的 感化)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相互 奉仕와 犧牲精神: 아버지의 사랑이 거의 맹목적인 희생애로서 溺愛에 빠지기 쉽지만, 교사의 교육애는 가치실현을 돕는 價値愛에 의한 犧牲과 奉仕이며, 모든 학생에게 公平하여야 한다는 점이 그것과 특이하다.

㉟ 教師와 權威

權威는 實質(內)的 權威와 形式(外)的 權威로 구분된다. 前者는 권위자의 內의 人格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와 타인이 받는 感應으로서 이루어진 권위이고, 後者는 권위자의 밖에 있는

51) 崔燦燮, 學習指導(大邱: 螢雪出版社, 1982), pp.100~103.

社會的 制度가 권위자에게 주어져 타인을 지배하는 권위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實質的 權威는 가치의 體現者 및 가치의 仲介者로서 교사의 인격이, 곧 인류사회와 문화를 대표하는 師表로서 학생에게 인식되어 짐으로써 갖추어지게 된다. 학생은 師表인 교사의 인격을 흠모하여 이와 동일한 自己實現을 지향하여 노력하는 한편, 교사의 큰 관심은 그러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形式的 權威는 학교라는 하나의 公共集團에서 교사가 학교행정·학급경영상 학생을 관리하고, 교무를 수행하는 데서 학생에게 명령하고 상찬과 책벌을 가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行政的 立場에서 교사가 갖는 권위가 곧 외적 권위이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간의 人間關係는 形式的으로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實質的으로는 교사의 인격이 학생에게 감응되어지는 관계이므로, 教權은 兩者를 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傳統的인 教師中心의 教育에서는 형식적 권위만이 교사의 권위인 것으로 착각되어 非教育的인 處事가 教育의 실체를 지나치게 규제하여 師弟間의 반목과 대립을 야기시키는 경우마저 있어 왔다. 그러나 教育의 實際는 형식적인 규제보다 人格的 感應이 보다 크게 작용하여야 하므로 教權은 實質的 權威가 主軸을 이루고 여기에 약간의 형식적 권위가 부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實質的 權威가 보다 우세할 때 학생들은 교수와의 거리감을 해소시켜 학업문제와 장래문제 및 인생문제를 虛心坦懷하게 토론할 것이며, 학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는 接觸·充實한 講義·誠實한 學生指導, 즉 바람직한 教授像도 확립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0) 專門的인 職業指導 必要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 장래 직업을 갖겠다는 것이며, 그 직업도 자기의 개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과 안정된 직업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직업세계의 복잡성에 따른 職業選擇은 職業情報 이상의 課業이며, 特定 職種과 個人的 適性과의 配合以上の 綜合的인 判斷과 決定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專門的인 助言指導를 必要로 한다.⁵²⁾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산업의 발달과 전자자동화에 의한 새로운 직종의 탄생과 직업의 분화 및 전문화의 경향은 직업세계를 그 어느 시대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직업세계의 복잡성은 한편으로는 청년에게 직업 선택을 포함하는 生涯의 設計를 곤란케 하는 요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人生에서 다른 어떤 결정보다도 가장 賢明하고 智慧로운 決定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한번의 感情的인 判斷이 직업적 성공을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2) 鄭元植·朴性洙, 카운슬링의 原理 (서울: 教學圖書株式會社, 1978), pp.17~18.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직업세계에서의 職業選擇은 직업세계에 대한 바른 理解와 아울러,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외에 신체적 조건·가족의 기대·직업에 대한 가치의식·자아개념·성실 및 노력, 즉 職業的 成功을 좌우하는 여러 要因이 개입되어 현명한 판단에 의한 決定이 必要하다.